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5호 (2013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5호 (2013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9 September 2013

① 주차_9.01-9.08

1. 대내 동향	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6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② 주차_9.09-9.15

1. 대내 동향	22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28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34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③ 주차_9.16-9.22

1. 대내 동향	3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4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49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④ 주차_9.23-9.30

1. 대내 동향	54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59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67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인쇄: 2013년 11월 발행: 2013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윤훈희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9.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10 October 2013

① 주차_10.01-10.06	1. 대내 동향 7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79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83
② 주차_10.07-10.13	1. 대내 동향 9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96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01
③ 주차_10.14-10.20	1. 대내 동향 10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1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21
④ 주차_10.21-10.27	1. 대내 동향 12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3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39
⑤ 주차_10.28-10.31	1. 대내 동향 144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46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50

- 9월 일지 / 154
- 10월 일지 / 156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01-9.08

9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9월 첫날부터 ‘정권 수립’ 65주년 경축 모드(9/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면에 ‘공화국 창건 65돌을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뜻깊게 맞이하자’는 제목으로 강원도 마식령스키장, 평안북도 간석지 등의 경제 현장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머리기사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각지 경공업 공장을 소개하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려 뜻깊은 9월의 축전장을 빛낼 불타는 일념”이라고 언급, 주민이 쉽게 체감하는 경공업 분야 증산에 신경 쓰고 있음을 드러냄.
- 北 김정은 부부, 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9/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내무군(우리의 경찰에 해당) 협주단의 음악·무용 종합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리설주는 지난달 초 남편과 함께 ‘전승’(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60주년 경축 열병식 참가자를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이후 한 달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함.
 - 김 제1위원장은 ‘선군의 나의 조국’이라는 제목의 공연 관람 후 “오늘 공연을 보면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해가려는 내무군 장병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공연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함.
- 北 김정은, 서해 최전방 장재도·무도 방어대 시찰(9/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해 최전방에 있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작년 8월 중순 장재도·무도를 처음 찾았으며 이후 올해 3월 초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이 곳을 시찰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장재도에서 “중전의 건물들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새로 꾸린(건설한) 병영(내무반)과 살림집(주택), 진지를 돌아보면서 건설 상태와 방어대의 요새화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국제 IT경연대회 참가 독려(9/3, 연합뉴스; 조국)

- 북한 내각 교육위원회 정영희(54) 국장은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월간지 ‘조국’ 9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이 최근 “우리 대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프로그램 경연들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둬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치도록 국제경연 참가를 조직화할 데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밝힘.
- 이어 “우리는 이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국제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과 ‘코드쉐프’ 프로그램작성도전 경연은 물론 인터넷상에서 진행되는 기타 프로그램 경연들에도 주의를 돌리고 거기에도 적극 참가하려고 한다”고 덧붙임.

● 北 김정은, 서해 최전방 또 시찰…대남 위협언사 없어(9/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백령도 타격부대인 서해 최전방의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월내도방어대를 새로 잘 꾸려주는 것은 외진 섬 초소에서 청춘시절을 바쳐가는 군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조국수호의 전초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함.

● 北 ‘리경선’ 이어 ‘전경선’ 띄우기(9/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일꾼들의 혁명적 군중관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남흥화학을 방문해 전경선을 칭찬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경선 동무를 비롯한 기업소 일꾼들의 군중관점과 일본새(작업태도)는 우리 일꾼들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라고 밝힘.
- 신문은 “우리 일꾼들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일꾼들의 군중관점과 일본새를 본받아 앞채를 메고(앞장 서서) 일할 때, 인민을 위한 당의 사랑과 은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하기 위해 뛰고 또 떨 때, 인민생활 향상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민심이 당·국가활동의 근본원칙”(9/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일심단결의 나라이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 공화국의 격동적인 현실은 민심을 중시하고 민심에 철저히 의거할 때 가장 공고한 사회적 단합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민심을 틀어쥐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이 당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고 있기에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나라의 모든 일이 다 잘되어 나가고 있다”고 민심을 거둬 강조함.

● 北 김정은 부부, 로드먼과 농구경기 관람(종합2보)(9/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방북 중인 미국프로농구(NBA)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을 만나 농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새벽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로드먼 일행을 만나 “좋은 계절에 벗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아무 때든 찾아와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라”고 말함.

● 北, 정권 수립 65주년 맞아 애국심·충성심 독려(종합)(9/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1면에 실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조선 만세’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국가의 성패와 인민의 장래운명은 어떤 영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며 “두 분의 위대한 태양(김일성·김정일)을 모시어 공화국의 역사도 위대하다”고 주장함.
- 이어 “애국의 불타는 열망으로 대원수님(김일성·김정일)들의 영생을 대대손손 지켜 드리자”며 “원수님(김정은) 따라 최후승리를 향해 끝까지 갈 심장의 맹세를 올리자”고 독려함.

■ 김정은동향

- 9/2,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인민내무군협주단의 음악무용 종합공연 ‘선군의 나의 조국’ 관람(9.2,중통·중방)
 - 박봉주,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김양건, 최부일 관람
- 9/2, 김정은 黨 제1비서, 9.1 김치선(女, 100살)에게 ‘생일상’ 전달(9.2,중통)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시찰 및 “섬 방어대들을 꾸리는데 기여한 단위들”에 ‘감사’ 전달(9.3,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박정천,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등 동행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애국돌공장(황해남도 해주시) 현지지도(9.3,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등 ‘장재도·무도영웅방어대 시찰 수행 간부들’ 동행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월내도방어대 시찰(9.3,중통)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박정천,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동행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룡연바닷가 양어사업소 현지지도(9.3,중통)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박정천,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동행
- 9/5, 김정은 黨 제1비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과 근로자들’(육해운성 산하 청진대리사무소 부원 윤병철·농업성 산하 지구자재공급소 노동자 김종철 등)에게 감사 전달(9.5,중방)
- 9/7, 김정은 黨 제1비서, 美 NBA 前 선수 ‘데니스 로드먼’과 담화 및 농구경기(4.25팀 : 압록강팀) 관람후 만찬 마련(9.7,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9.7 정권 수립 65돌 즈음 전체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축하문 전달 (9.7,중통·중방)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재생 에네르기법(6개 장·46개 조항)” 새로 채택·발포(9.2,중통)
- ‘北 정권 수립(9.9) 65돌 즈음 ‘모두다 黨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이 발전된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빛내어 나가자’고 호소 (9.4,중통·노동신문)
- 김정일 저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발표 5돌 즈음 ‘김정일의 사회주의 강국의 선군영도 업적’ 칭송 및 “경제강국·사회주의 문명국건설 창조” 강조(9.5,중통·노동신문)

나. 경제

● 北 ‘가을걷이 전투’ 시작…추수 준비에 총력전(9/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일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를 제철에 와닥닥(빨리)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전국에 호소하는 (평안남도) 숙천군 농업근로자들의 꺾기모임이 2일 열두삼천 농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행사에서 연설한 농민들은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방향으로 정해주고 비료와 비닐 박막 등 영농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줬다”라며 전역의 농민에게 추수를 제철에 끝내자고 호소함.

● 北, 벌써 ‘올해 생산계획 완수’ 보도 잇달아(9/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평안남도 덕천 탄광기계공장에서 8월 말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했다”라며 “가공직장, 제관직장의 노동자들은 연초부터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연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했다”고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덕천탄광기계공장(평안남도)에서 “8월말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 지표별로” 완수(9.5,중통)

다. 사회·문화

● 北, 재생에너지법 제정…“관련산업 활성화·환경보호”(9/1, 연합뉴스; 민주조선)

- 전력난 등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을 겪는 북한이 최근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8월 23~24일자는 2회에 걸쳐 ‘법규해설’ 코너에서 ‘재생에너지(에너지)법’을 상세히 소개함.
- 재생에너지법이 북한 매체에서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민주조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법을 채택·발포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옆자리 차지한 ‘백발의 축구 해설자’(9/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애국자 축구박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14일 룡악산팀과 보통강팀 간 남자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 북한의 축구 해설자 리동규가 주석단에 앉아있었다고 소개함.
- 신문은 당시 신문과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본 주민이 김 제1위원장 옆자리의 ‘머리 흰 사람’에 대해 궁금해했다며 “그가 바로 인민이 사랑하는 축구경기 해설원인 체육과학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사 리동규 동무”라고 밝힘.

● **北, ‘교육절’ 맞아 교육부문 성과 선전(9/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교육절’을 맞아 ‘주체교육이 걸어온 자랑스런 역사를 더듬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후대들을 위한 (김일성 주석의) 사랑 속에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학교가 세워지고 전반적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에 이어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됐으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새 역사가 펼쳐졌다”고 보도함.
- 신문은 선대 지도자들의 ‘승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원대한 구상’으로 북한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된다고 “뜻깊은 9월을 맞은 우리 인민과 교육자들의 가슴은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우뚝 솟으리라는 긍지와 확신으로 설렌다”고 강조함.

● **北 올 여름철 폭우 사망자 33명으로 늘어(9/5, 연합뉴스)**

- 5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8월 말까지의 북한 수해 상황을 종합한 ‘재난 구호를 위한 긴급자금(DREF)’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초 내린 폭우로 북한 6개 도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 33명이 사망하고 18명 실종됐으며 2명이 부상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北 ‘9·9절’ 앞두고 연일 ‘살기좋은 평양’ 선전(9/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은혜로운 사랑 넘치는 인민의 지하궁전, 평양지하철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하철을 ‘평양의 기념비적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며 정권수립 65주년 기념일(9월 9일)을 앞두고 수도 평양의 현대적인 생활·문화시설을 선전함.
- 신문은 평양 지하철 개통 이후 40년이 지났다고 세계적으로 평양 지하철만큼 “철두철미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해 건설되고 복무하는 그런 지하철도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함.

● **북한상품 중국서 인기 여전…투자 유치는 ‘냉랭’(9/6, 연합뉴스)**

- 6일 중국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개막한 제9회 중국-동북아박람회 행사장에 150㎡ 규모로 설치된 북한 전시관은 온종일 중국인 관람객들로 붐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관람객들은 해산물 가공식품, 건어물, 들쭉술, 송이술, 산삼꿀 등의 식료품과 의류, 건강보조식품 등을 관심 있게 살펴봤고 중국산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주저 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대량으로 사들임.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택시용 中 차량 60대 수입(9/4,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 자동차업체 비야디(BYD)의 'F3' 승용차 60대를 평양의 택시로 쓰기 위해 구매했다고 보도함.
 - RFA는 평양에서 운행 중인 택시가 약 1천 대라며 택시뿐 아니라 버스와 일반 승용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임.
- **WFP 8월 대북식량지원량, 2년 만에 최저(9/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약 2천 50t으로 최근 2년간 가장 적은 월간 지원량이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WFP의 월간 지원규모는 3천여t(1월) → 6천여t(2월) → 4천여t(3·4월) → 3천여t(5·6월) → 2천900t(7월)으로 매달 감소해 8월 지원량은 올해 들어 가장 적었으며, 2011년 8월 200t의 식량을 지원한 이후 2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함.
 -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올해 들어 국제사회의 모금액이 급격히 감소해 지난 5월부터 북한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 북한 주민 74만 3천여 명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목표만큼 식량을 제공하지 못했고 지원 기간도 줄었다”고 설명함.
- **미국 국무부, 北 재초청하면 킹 특사 파견(9/5, 미국의 소리(VOA))**
 -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가 “북한이 다시 초청하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를 파견할 방침”이라면서 북한이 억류 중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를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日 조사단, 北서 일본인 매장지 추가 발견(9/6, 미국의소리(VOA))**
 - 일본 민간조사단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매장지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6일 보도함.
 - 일본 조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함경북도 고무산과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등에서 일본 군인과 군무원, 영유아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힘.

- **北 아리랑공연, 9월 말까지 연장(9/6, 연합뉴스)**
 - 6일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5일 이 여행사에 아리랑 공연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북한 당국은 “우리는 친선과 평화를 위해 관광객들을 환영한다”며 아리랑 공연 기간 연장도 “관광객들과 북한 주민들의 공연 관람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구글과 북한 인터넷망 구축 협의 의사 있다(9/6, CNBC)**
 - 북한 휴대전화 사업에 참여하는 이집트 통신 재벌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회장이 북한의 모바일 서비스와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을 위해 구글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CNBC가 6일 보도함.
 - 사위리스 회장은 “우리가 북한을 내버려둔 채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핵전쟁 같은 비정상적인 일만 하려들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손을 뻗는다면 그들을 천천히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힘.

- **북한, 몽골·러시아와 경협 가속화(9/6, 연합뉴스)**
 - 구본태 북한 무역성 부상은 6일 중국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제7회 동북아합작고위급포럼에 참석, “현재 우리나라와 몽골 사이에 일련의

긍정적인 협조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화물수송 협조 문제와 나선 특구에 대한 몽골기업들의 투자 문제,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조 문제가 합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또한 구 부상은 러시아와의 경협 상황에 대해서는 “나진~하산 철도 개통식이 이달에 진행되고 (러시아가 장기임대한) 나진항 3호 부두 개보수 공사도 올해 말까지 완공된다”고 전함.

● **시리아 대통령, 北 김정은에 축전(9/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시리아간 화학무기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수립 65주년(9월 9일)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친선을 강조했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나는 이 기회에 조선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말함.

● **방북 로드먼 베이징 도착…케네스배 동행 안해(종합2보)(9/7, 연합뉴스)**

- 지난 3일 방북했던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52)이 일정을 마치고 7일 기착지인 중국 베이징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로드먼은 그러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를 데리고 돌아오지는 않음.

● **北-스위스 합영회사, 북한 지방에도 연내 약국 개설(9/8, 연합뉴스)**

- 8일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공동투자한 ‘평스제약합영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말까지 평안남도 평성에 약국 체인점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평스제약합영회사는 스위스 기업과 북한 보건성 산하 평양제약공장이 공동투자한 회사로 2004년부터 평양에서 비타민C, 해열진통제 등의 약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평양에서 약국 9개를 운영 중임.

기타 (대외 일반)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움직임에 대해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평창 야망실현"이라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빠져들지 말고 심사숙고하라'고 지속 강조(9.2,중방)

나. 6자회담(북핵)

●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 北서 6자회담 재개 논의”(9/2, 연합뉴스)

- 연합뉴스의 2일 보도에 따르면,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최근 방북 성과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에 “중조(북중) 쌍방은 현재의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북한 비핵화 입장 변화 감지 안 돼(9/6, 연합뉴스)

-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6일 “중국 외교부가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 결과를 관련국에 디브리핑(사후설명)했지만 거기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이 소식통은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었느냐고 질문했지만 중국 측은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며 “우다웨이의 방북 기간에 양국이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조선신보 “이석기 사건’은 국정원이 꾸며낸 것”(9/6,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6일 남한의 ‘이석기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함.
 - ‘33년만에 부활한 내란음모죄’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이석기 사건을 “진보 세력들에 대한 탄압 광풍”이라고 규정하며 “(대선 개입 의혹으로) 개원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국정원이 국면 전환을 위해 꾸며낸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밝힘.
 - 또한 ‘남조선 당국자들’이 “광란적인 ‘중북’ 소동으로 동족대결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온 겨레가 좋게 발전되기만을 바라는 북남관계를 당리당략에 악용해 찬물을 끼얹으려는 위정자가 누구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 **北, 평양에서 ‘태극기 게양·애국가 연주’ 첫 허용(종합2보)(9/6, 연합뉴스)**
 - 통일부가 1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대회 참석차 방북하는 선수단은 대한역도연맹 소속 7개 클럽팀 선수와 임원, 역도연맹 관계자 등 41명임.

- **北조평통 “이석기-北 연계 주장은 도발”(9/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6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이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함.

- 조평통은 보도를 통해 ‘이석기 사태’와 관련, “괴뢰보수패당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 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서해 軍통신선 정상개통…개성공단 재가동 탄력(9/7, 연합뉴스)
 - 남북이 개성공단 출입경 명단을 주고받는 수단인 서해 군(軍) 통신선이 7일 정상적으로 재개통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저녁 9시15분에 광케이블 3회선(직통전화·팩스·예비선)을 통한 음성통화와 자료 송수신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 9시 광케이블을 통한 시험통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군 통신선이 정상적으로 복구됐다”고 밝힘.
 - 남북은 지난 5일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함.
- 北통신 “이석기 사건, 남북대화에 대한 도발”(9/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남한의 ‘이석기 사건’에 대해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이며 평화·대화 분위기에 대한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라고 비난함.
 - 중앙통신은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빠졌다며 이석기 사건은 “궁지에 몰린 자들이 조작해낸 현대판 마녀사냥으로서 파쇼독재 강화와 북남대화 분위기 파괴를 노린 새로운 정치모략행위”라고 밝힘.
- 北, ‘이석기 사건’ 사흘째 비난…“동족대결 조장말라”(9/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파쇼 광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보원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내란음모’ 감투를 씌우고 우리와 억지로 연결해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미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그들(이석기 등)의 행동은 누구의 지령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이 ‘탄압을 받는 것은 이들이 누구보다도 ‘유신’ 독재 부활을 반대하고 국정원 해체를 앞장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 합의 못해…남북, 10일 재논의(9/2, 연합뉴스)**
 - 남북은 2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공단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은 합의하지 못했으며 양측은 오는 10일 공동위 2차 회의를 갖고 공단 재가동 시점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단 재가동에 앞서 현재 단절된 상태인 서해 군(軍) 통신선의 복구, 공단의 기반시설 정비,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북측은 조속한 공단의 재가동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 양측은 공동위 산하에 설치된 4개 분과위 협의를 2차 회의 이전까지 우선 진행해 재가동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하고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 회의는 4일, 출입체류 분과위와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 회의는 5일 각각 열기로 합의함.

- **장웅 北IOC위원, 평창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용의 시사(9/3, 미국의소리(VOA))**
 -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강원도 원산에 건설중인 마식령스키장을 활용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분산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일 보도함.
 - 장 위원은 “그런 것(평창 동계올림픽)을 다 연결하고 건설하는 것”이라며 “스키장이 건설되면 국제대회에도 쓰고, 가능하면 올림픽 경기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올림픽 남북 공동 주최는 IOC 및 국제스키연맹 등과 복잡한 논의가 필요해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도 함께 피력함.

- **남북, 이산가족 남측 상봉단 숙소 놓고 이견(9/5, 연합뉴스)**
 - 금강산에서 오는 25~30일 열릴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사용하게 될 남측 상봉단의 숙소 문제에 대해 남북간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 이산가족들의 숙소로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3일 전달했으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객이 예약돼 있어 두 호텔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해금강 호텔과 현대생활관을 사용할 것을 지난 4일 제의함.
- 우리측은 5일 통지문을 통해 “해금강 호텔은 2008년 후 점검 보수가 안돼 안전성에 우려가 있고 현대생활관은 규모가 작아 우리측 이산가족 모두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북측의 제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2009년과 2010년 상봉행사를 개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촉구함.

기타 (대남)

- 개성공단 ‘제7차 남북 당국 실무회담’ 합의를 채택을 거론하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 및 남북 공동선언 이행투쟁’ 지속 주장(9.2,평방)
-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9.2 진행 및 “공동위원회와 분과 위원회를 구성, 기능과 역할, 운영방식과 방법을 협의 확정” 등 회의 결과 신속 보도(9.3,중통·중앙·평방)
- 유엔인권조사위 조사단(COI) 방한 등 관련 ‘북 인권문제란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할 흉계 밑에 고안된 모략낚조품,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용납 못할 범죄흉계,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9.3,평방)
- 北, 통합진보당 소속 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8.30) 발언(국정원이 내란음모사건 조작을 위해 인권유린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등) 보도(9.3,중통)
- 北, “南 시민사회단체(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8.31 국정원 앞)와 재미 동포들(8.30, 뉴욕)이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 조작’을 규탄 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보도(9.4,중통)
-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한 것을 거론하며 “지금 이 소중한 성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그 방도가 대화와 협력을 다방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9.7,노동신문/민족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09-9.15

9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정권수립일 맞아 평양 과학자주택단지 시찰(9/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정권수립 65주년(9월 9일)을 맞아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 거리를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다”며 “당에서는 앞으로 과학교육부문 일꾼들을 위한 살림집과 휴양소를 일떠세우는(건설하는) 것을 건설분야에서 주타격 방향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함.

- **北, 정권수립 65주년 기념 노농적위군 열병식(9/9, 조선중앙TV)**
 - 북한은 9일 정권수립 6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병력인 노농적위군의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실황보도함.
 - 노농적위군 복장의 박봉주 총리는 경축보고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포성을 계속 높이 올려나가야 하겠다”고 말함.
 - 박 총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지만 적들이 끝끝내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면 천만이 총이 되고 폭탄이 되어 사회주의 조국을 철용성 같이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9·9절’ 맞아 재일동포에 축하문(9/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9일 정권 수립 65주년 경축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가 지난 7일 일본 도쿄 소재 조선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이 대회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낸 축하문이 낭독됐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하문에서 “공화국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성조선으로 위용 떨치는 데는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받아들여온 총련 일꾼

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지성도 깃들어 있다”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애국업적을 쌓아올린 전체 총련 일꾼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부부, ‘9·9절’ 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 관람(9/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정권 수립 65주년을 기념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공연에서는 노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선군의 나의 조국아’ 등이 펼쳐졌고 출연자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칭송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인민내무군협주단의 창작가와 예술인들에게 공연 준비를 잘했다며 ‘감사’를 줬다고 통신은 전함.

● **北, 새 노래 ‘조국찬가’ 띄우기…애국심 고취 의도(9/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애국심을 강조하는 ‘조국찬가’라는 새 노래에 대한 각 계층의 찬사를 소개하며 애국심을 고취함.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노래가 온 나라를 흥분으로 끓어번지게 한다며 “공화국 공민 된 긍지로 가슴 부풀게 하고 있으며 조국을 위해 심장을 바쳐갈 맹세를 가다듬게 한다”고 강조함.

● **北 신문 “자주·선군·사회주의는 백년대계 전략”(9/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노동당의 영도 따라 자주·선군·사회주의 길로 전진하는 것”이 북한의 ‘백년대계 전략’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1면 사설에서 ‘자주의 길’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입장을 고수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 힘과 자기 식대로 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힘.
- 또 ‘선군의 길’은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 강화에 최대의 힘을 쏟으며 모든 문제를 군사선행, 선군후로의 원칙에서 풀어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함.

- **北 김정은, 리모델링 마친 평양체육관 시찰(9/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개월간 진행해오던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 마친 평양체육관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번 평양체육관 시찰에서 리모델링 상황을 점검하며 “새로운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속에 역사가 있는 평양체육관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됐다”라고 평가함.

- **北 민간인에 잇단 장성 계급장…김정은의 ‘별 정치’(9/15,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지난 11일 국방분야 과학자·기술자 주택단지로 보이는 ‘은하과학자거리’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최대 국방과학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 최춘식 원장이 중장(우리의 소장)계급을 단 모습을 내보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함.
 - 최춘식뿐 아니라 현 북한 군수공업의 3인방인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백세봉 제2경제(군수경제)위원장도 김정은 체제에서 군 계급장을 달았다고 뉴스는 전함.

김정은동향

- 9/9,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 시찰 및 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9.9,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최룡해, 김인식, 최휘, 박태성, 홍영철, 마원춘 등 동행
- 9/9, 노동적위군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9.9 김정은 참가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9.9, 중통·중방·평방)
 - 김영남, 박봉주(경축보고), 최룡해, 장성택, 리영길,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최영림,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김영대 등과 권순휘(총련중앙 상임위 고문), 최은복(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
- 9/10, 김정은 黨 제1비서와 리설주,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 관람(9.10, 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리영길, 김경희, 김기남, 최부일 등과 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 무관부부, 외국 손님들이 함께 관람
- 9/11, 김정은 黨 제1비서, 9.11 시리아 대통령 생일 48회 축전 발송(9.11, 중통)
- 9/13,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평양산원 의사 김세준’ 등에게 감사 전달(9.13, 중방)
- 9/15,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개건된 평양체육관 시찰(9.15, 중통·중·평방)
 - 장성택, 리재일, 마원춘 동행 및 강철성(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김성남(대외건설지도국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현지 영접

- 김정은, 룡라인민유원지 유희장에 새로 건설한 입체울동영화관과 전자오락관 시찰(9.15,중통·중·평방) - 장성택, 리재일, 박춘홍, 마원춘 동행
- 9/15, 김정은·리설주 부부, 9.15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4일차 63kg급·69kg급 경기 관람(9.16,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장정남, 김기남, 리영수 등 함께 관람
- 北, '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4일차 경기결과 보도(9.16,중통)
- '北 선수들이 연일 우승을 하고 있다'며 '엄윤철'의 세계신기록 갱신 소식 보도(9.16,중통)
- 北, 제8차 9월10일 전국 무도선수권대회 15일 경기성적 소개(9.15,중통)

나. 군사

●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영웅' 최춘식은 인민군 중장(9/11,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지난해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의 주역인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이 인민군 중장(우리의 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조선중앙TV를 인용·보도함.
- 조선중앙TV가 11일 북한 과학자 주택단지인 '은하과학자거리'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내보낸 현장 영상에서 중장 계급장을 단 최춘식의 모습이 포착됨.

● 북한, 병력·노후 재래식무기 감축키로(9/14, 도쿄신문)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되, 국방비 절감 차원에서 병력 수와 노후한 재래식 무기를 줄이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북한군 출신 탈북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인민군 장교 출신인 장세을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북한내 소식통들에게 확인했다며 북한이 지난달 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씨름판도 ‘세대교체’…20대 신예 전국대회 패권(9/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6일 평양 능라도 씨름경기장에서 열린 제11차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비교씨름’에서 황해남도팀의 손광철(23)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9일 보도함.
 - 몸무게 88kg의 손광철은 결승전에서 강원도팀의 김금철(21)을 2 대 0으로 가볍게 꺾었으며 조선신보는 “관록과 경험이 승패에 큰 작용을 하는 전국 규모의 씨름경기에서 20대가 대항소를 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함.

- **北 ‘9·9절’ 공연·무도회로 ‘잔치 분위기’(9/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냉면으로 유명한 평양 옥류관에서 정권수립 기념 연회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정·군 주요 인사, 해외동포, 북한 주재 외교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보도함.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들어 공화국을 영원한 태양의 나라,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국가로 빛내며 이 땅 위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 제일강국, 인민의 낙원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함.

- **‘北 스포츠에도 부정행위(?)’…적발팀 6개월 출전정지(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체육성의 체육경기규율심의위원회 대변인은 남자축구팀인 노동적위군 ‘선봉팀’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이 팀의 국내외 대회 참가자격을 6개월간 박탈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대변인은 선봉팀의 부정행위를 “건전한 체육정신과 도덕기풍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체육경기에서 부정선수과 소속팀을 엄격히 처벌키로 했다고 밝힘.

- **北 은하과학자주택단지 준공식…입주 시작(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과학자·기술자 전용 주택단지로 새로 조성한 평양 교외의 ‘은하과학자거리’가 11일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박 총리는 준공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첨단 과학연구 성과로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과시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라며 최첨단 실력·실적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5세 미만 사망률 194개국 중 77위(9/14,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전 세계 194개국 중 77위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고서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 UNICEF는 전날 발표한 ‘아동생존 보고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사망한 (1세 이상) 5세 미만 북한 어린이는 모두 1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사망률은 1천 명당 29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 사망률인 1천 명당 48명보다는 낮은 수준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정권 수립(9.9)’ 65돌 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번영하라 조국이어’, 9.10 박봉주(내각총리) 참가자 인민극장에서 진행(9.10, 중통·중방)
- 2013년 청년·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 역기선수권대회, 9.12 평양 류경 정주영체육관에서 개막 (9.12, 중통·평방)

2 대외 관계

가. 일반

- **시진핑·푸틴, 北 김정은에 정권수립 65주년 축전(9/9, 조선중앙통신)**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북한의 정권 수립 65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시 주석은 축전에서 “우리는 조선인민이 앞으로 나라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충원한다”며 북중 친선은 양국의 귀중한 재부라고 밝힘.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김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두 나라가 앞으로 쌍무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힘.

- **로드먼 “김정은-리설주 딸 이름은 ‘김주애’”(9/9, 가디언(The Guardian))**
 - 최근 방북한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인 리설주 사이의 딸 이름은 ‘김주애’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The Guardian)이 9일 보도함.
 - 로드먼은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의 딸 주애(Ju-ae)를 안았고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씨(MS.Lee)와도 이야기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좋은 아버지였고, 아름다운 가족이 있었다”고 밝힘.

- **로드먼 “북한, 올림픽 농구대표팀 훈련 요청”(9/9, AP통신)**
 - 최근 두 번째 북한 방문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온 미국 프로농구(NBA)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6년 올림픽 농구 대표팀을 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함.
 - 로드먼은 “내년 1월 북한에서 농구 시범경기 두 게임을 개최할 계획이고 시범 경기에 출전할 선수 선발을 돕기 위해 12월 북한에 다시 갈 예정”이라면서 “시범 경기에 NBA에서 함께 활동했던 스캇 피펜이나 칼 말론 같은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北주체사상 다룬 다큐영화 내달 美영화제 상영(9/10, 미국의소리(VOA))**
 - 미국인 영화감독 롭 몬츠가 관광객으로 북한에 들어가 몰래 찍은 영상들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주체스트롱(Juche Strong)’이 다음달 19일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와 같은달 25일 열리는 북한인권영화제에 잇달아 선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함.
 - 몬츠 감독은 북한이 경제난과 고립 속에서도 버티는 데는 주체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영화를 통해 “미국인들이 북한을 비이성적이고 기괴한 나라로만 인식하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함.

- **중국서 北김정은 담화 번역 출간(9/10, 중국신문사)**
 - 10일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등에 따르면 단둥룡산인쇄장은 지난 3일 김 제1위원장의 담화인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를 단행본 형태로 번역 출간했다고 보도함.
 - 북한에서 ‘노작’(勞作)으로 불리는 이 담화는 김 제1위원장이 작년 4월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을 모아 놓고 발표한 것으로 평양시를 화려하고 웅장한 세계적인 도시로 꾸미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국 난핑, 북한 무산 철광석 수입 회복세(9/10, 연변일보)**
 -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북한 무산철광과 인접한 중국 지린성 허룽(和龍)시 난핑(南坪)진을 통한 북한산 철광석 수입이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연변일보가 10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육로국경세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난핑통상구는 올해 1~8월 북한산 철광석 통관물량이 38만 6천톤에 달해 지난해보다 두배가량 증가함.

- **北 나진~러 하산 철도 수일 내 개통(9/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수일 내 개통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의 소리’ 방송을 인용해 11일 보도함.

- 러시아 외교부 관리는 러시아의 소리 방송에 러시아 철도회사가 공사를 맡아온 나진~하산 구간이 곧 재개통된다고 북-러 국경철도 개통식이 며칠 내에 열릴 계획이라고 밝힘.

● **北 김정은 ‘화학무기 의혹’ 시리아 대통령에 생일 축전(9/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1일 아사드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생일 48돌을 맞는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며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시리아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며 “언제나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함.

● **北 ‘14년 만의 국제대회’ 역도선수권 성공에 총력(9/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개막식이 열린 12일 아시안컵 역도선수권대회와 아시아 클럽 대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돼 열리게 됐다며 이번 대회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나라 선수들과 감독, 전문가들은 대회 준비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 김광덕 조선역기협회 서기장은 아시아역도연맹과 협력해 이번 대회가 “세계 여러 나라의 역기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의의 있는 경기 무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장웅 北 IOC 위원 “남한의 IOC 위원 도전 지지”(9/12, 미국의소리(VOA))**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ICO 총회에 참석 중인 장 위원은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가 새 IOC 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 우리 민족이 IOC에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함.

- 장 위원은 조 총재가 IOC 후보가 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IOC에 도전하면 적극 밀겠다고 덧붙임.

- **유엔, 북한에 92만 달러 긴급 수해지원(9/13, 미국의소리(VOA))**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 수해에 92만 달러(약 10억원)를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으며 이 자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수재민에게 의약품과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불가리아 올해 대북 수출품 90%가 주류(9/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불가리아의 올해 대북 수출품목 중 대부분이 와인, 위스키 등 양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함.
 - 방송은 코트라(KOTRA) 소피아무역관이 불가리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1~4월 불가리아의 대북 수출액은 2만 2천 301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전기 주방용품(1천 336달러), 해바라기씨(641달러)를 제외하면 위스키(7천 848달러), 와인(7천 146달러), 보드카(5천 882달러) 등으로 수출품의 90% 이상을 양주가 차지한다고 밝힘.

- **싱가포르 유람선, 손님 없어 금강산 관광사업 포기(9/13,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3일 일본 NHK 방송을 인용해 북한의 나선과 금강산을 오갔던 유람선 '황성호'가 중국인 관광객의 규모가 작아 지난달 말 사업을 포기하고 이달 초 싱가포르로 철수했다고 보도함.

- **北, 美·英 지원받아 백두산 화산 관측 시작(9/13,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 영국 등 서방 과학자들과 함께 백두산에서 화산·지진 관측을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3일 보도함.
 - 제임스 해몬드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VOA와의 통화에서 영국과 미국 과학자 3명과 독일 비영리단체 관계자 1명 등 4명의 방북단이 백두산에 지진계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달 북한을 다녀왔다고 밝힘.
 - 해몬드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에 북한 측 과학자 30여명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북한이 지진계로 측정된 데이터를 3~4개월마다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과 공동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함.

- **北, 23~26일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9/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제9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통신은 전람회에 중국, 러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몽골, 폴란드 등 13개 나라와 지역의 무역회사가 참가하며 CNC 공작기계를 비롯해 전기·전자·건설·화학·경공업 분야의 제품과 식료품, 의료기구 및 의약품, 각종 운수수단이 출품될 예정이라고 소개함.

- **북한, 2020올림픽 개최지 IOC투표서 도쿄지지(9/15, 지지(時事)통신)**
 -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의 2020년 올림픽 개최지 투표에서 도쿄에 표를 던졌다고 15일 지지(時事)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한 북한관계 소식통은 지난 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도쿄에 투표했으며 북수의 아프리카 국가도 북한의 주선으로 도쿄를 지지했다고 말함.

기타 (대외 일반)

- 일본의 2012년 군사비 지출(세계 5위)을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비 증강책동은 자위대 무력을 최신식 군사장비로 무장시켜 옛 제국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비난(9.10, 평방)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중조우호협회, 9.6 베이징에서 지재룡 駐中 北 대사 등 초대下 '北 정권 수립' 65돌 연회 개최(9.11, 중통·중방)

나. 6자회담(북핵)

- **美 “北 강한 비핵화 의지 보이기전 6자회담 불가”(9/9, 연합뉴스)**
 - 한·중·일 순방에 나선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북한이 이미 이행을 약속했던 (비핵화) 조치들을 취하는 데 있어 훨씬 더 강한 (북한의) 의지를 우리가 볼 때까지 6자회담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견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문제는 북한은 최근 수주,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과거 노력에서 퇴보하는 행동과 선언을 하는 데 몰두해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지금 6자회담이 열려도 얼마나 생산적일지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실험용 원자로 8월 하순 재가동 가능성(9/12, 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해온 영변 실험용 원자로 복구작업을 완료하고 이미 재가동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내 연구소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통해 지난달 31일 영변 주변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전 주변 터빈 건물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히면서 연기의 색깔과 양을 볼 때 원자로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거나 가동에 인접한 상황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분석함.

● **유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안보리 결의 위반”(9/13, 연합뉴스; 이타르타스 통신)**

- 유엔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면 이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영변 원자로 재가동 의혹과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유엔사, 북한군 시신 판문점 통해 북측에 인계(9/11, 연합뉴스)
 -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평화의 댐 일대에서 발견된 북한군 시신 1구를 11일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한 것을 국방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北 “대화·협상 통한 통일이 우리의 원칙”(9/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평화수호는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통일을 무력에 의거하거나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자는 것이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평화적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라고 밝힘.
 - 신문은 “지금 우리 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계속 고조돼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이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에 따라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北신문 “북남대결시대에 영원히 종지부 찍어야”(9/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대결관념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대결관념은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시대의 오물’이라며 “북남대결의 시대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함.
 - 또한 “대결시대의 타성이 있어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친근감보다 외면하려는 생각이 앞설 수도 있다”며 “하지만 대결을 끝장내야 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16일부터 재가동…5개월 만에 완전 정상화(9/11, 연합뉴스)**
 - 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는 내용을 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이와 함께 남북은 다음달 중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기로 함.

- **北,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신속 보도(9/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가 10일과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됐다”며 “16일부터 공업지구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회의에서 북과 남은 1차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들에서 협의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합의서들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 교환(종합2보)(9/13, 연합뉴스)**
 - 남북 적십자가 13일 오전 판문점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가족의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대한적십자사(한적)는 북측이 남측 상봉 후보자 250명 가운데 167명의 북측 가족 생사 확인 결과를 전해왔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83명의 가족은 생사확인이 불가능함.

- **北, 南인원 개성공단 통행 편의 제고키로(종합)(9/13, 연합뉴스)**
 -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동위 2차회의 당시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남북은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3통 분과위에서 북측은 앞으로 지정시간대에 통행하지 못하는 남측 인원은 북측 통행검사소에 통지한다면 벌금 부과 없이 다른 시간대에 통행하는 것을 보장키로 함.

- **북한 역도대회서 한국 1·2위…처음 애국가 울려(종합2보)(9/14, 연합뉴스)**
 - 한국 역도 선수단의 김우식(19·수원시청)과 이영균(19·고양시청)은 14일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주니어 85kg급에 출전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개성공단 내일부터 재가동…공동위 3차회의도 개최(9/15, 연합뉴스)**
 - 개성공단이 16일 입주기업들의 시운전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사태 발생 이후 16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 정부 당국자는 “입주기업 123곳 중에 50~60% 정도가 첫날 재가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9.10-11 개성공단에서 진행 및 ‘9.16부터 개성공단 기업들 시운전 거쳐 재가동 합의’ 간략 보도(9.11,중통·평방·중방)
- ‘국정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수사’ 등 관련 ‘내란음모사건의 간판 밑에 벌이는 반공화국 소동은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내돌곤 하는 상투적 수법으로서 내외 여론을 탄 데로 돌리기 위한 광대극’이라고 지속 주장(9.12,평방)

9.16-9.22

9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리설주 부부, 평양 역도대회 관람(9/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15일 평양에서 진행 중인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 여러 나라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 **北 청년·여성동맹 회의 잇달아…“김정은 과업 관철”(9/17,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17일 평양에서 중앙위원회 제51차 전원회의를 열고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선군절’에 발표한 담화의 과업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전용남 위원장 등 청년동맹 간부들은 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의 담화를 토대로 강성국가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로 나설 것을 언급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은,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현장 시찰(9/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장을 시찰하며 군인 건설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함.
 -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이 세워질 실내 물놀이장 중앙 홀, 상점, 체육실, 식당 등을 차례대로 둘러보고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중앙방송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을 건설해 인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게 됐다”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구상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인민군 군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기적”이라고 평가함.

- **北 김정은, 일꾼·근로자들 편지에 ‘친필답장’(9/19,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 학생들에게서 받은 편지에 ‘친필답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보도함.
 - 이날 소개된 편지에 대한 답장은 지난 7월 24일 또는 8월 14일 자로 돼 있으며 김 제1위원장은 당의 경제강국 건설에 앞장서겠다며 충성을 맹세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를 받고 “나는 남흥노동계급을 믿습니다”라고 적은 짧은 친필답장을 보냄.

- **北 추석 맞아 ‘열사릉’ 방문 이어져(9/19,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북한에서는 19일 추석을 맞아 평양을 비롯한 각지의 열사릉과 열사묘에 각 계층의 방문이 이어졌는데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추석 분위기와 관련해 열사묘 참배 소식을 소개함.
 -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참전 열사묘, 만경대 구역에 있는 김일성 주석의 조부모인 김보현·리보익과 부모인 김형직·강반석의 묘에 화환을 보냄.

- **北, 문화상에 박춘남 승진 임명(9/2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내각 문화상에 박춘남 문화성 부상을 승진 임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평양대극장에서 새로 나온 노래 ‘조국찬가’에 대한 문예사상연구모임이 진행됐다고 전하면서 박춘남 문화상과 안동춘 문예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힘.

- **北, 리설주 연관 추문 은폐 위해 9명 처형(9/21, 아사히(朝日)신문)**
 -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을 은폐하기 위해 은하수관현악단과 왕재산예술단 단원 9명이 지난 8월 공개처형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함.

- 최근 탈북한 북한 고위간부에 따르면 이들 9명은 자신들이 출연한 포르노를 제작했으며 북한 인민보안부가 이들의 이야기를 도청, ‘리설주도 전에는 자신들과 똑같이 놀았다’는 대화 내용을 확보해 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은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8월17일 9명을 체포한 후 재판 회부 없이 3일후 평양시 교외의 강건 군관학교 연병장에서 군과 당의 고위간부, 악단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했다고 밝힘.

● **북한군 상장 고수일은 김정은 외삼촌…경호 맡아(9/22, 연합뉴스)**

- 북한 인민군 상장(우리의 중장)인 고수일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외삼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함.
-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작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제정된 ‘김정일 훈장’의 첫 수훈자 중 한 명인 고수일 상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의 남동생”이라며 “고수일은 호위사령부 장성”이라고 밝힘.

● **北, 김정은 조모 사망일 맞아 찬양 분위기 띄우기(9/2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매체들은 22일 김정숙의 공적과 관련 일화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잇달아 내보냄.
- 노동신문은 1면에 이어 2면과 6면의 상당 부분을 김정숙의 비범한 면모와 김일성 주석 호위와 항일운동, 민족 통일에 헌신한 업적, 인간적 매력 등을 칭송하는 기사를 실음.

■ **김정은동향**

- 9/16, 김정은·리설주 부부, 9.15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4일차 63kg급·69kg급 경기 관람(9.16,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장정남, 김기남, 리영수 등 함께 관람
- 9/18,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시찰(9.18,중·평방)
 - 리재일, 박태성, 마원춘 등 동행
- 9/18,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건설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9.18,중·평방)
- 9/19, 김정은 黨 제1비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종업원들 등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교직원·학생들이 올린 편지에 '친필' 전달(9.19,중통·중방)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박봉주·최룡해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등, 9.18 은하과학자거리 살림집에 입사한 세대들 방문(9.18,중통)
- 김영남·장정남·김원홍 등 黨과 정권기관, 9.19 추석계기 ‘김보현·리보익·김형직·강반석 묘’에 화환 진정(9.19,중통·중방)
 - 박봉주·최룡해 등 黨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 9.19 추석계기 ‘대성산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 묘’에 화환 진정(9.19,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보현·리보익·김형직·강반석 묘’와 ‘대성산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 묘’에 화환 보냄.
 -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학생들, 9.19 추석계기 ‘각지의 열사들 동상과 열사릉·인민군열사 묘’에 화환 진정(9.19,중방)

나. 경제

● 北 해주시에 현대적 맥주공장 완공(9/19, 노동신문)

-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에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맥주공장을 건설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함.
- 수 천㎡ 규모의 이 공장은 당화에서 발효, 여과, 병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가능하고 냉동설비를 비롯한 현대적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1년 만에 세포등판 5만 정보 목초지로 개간(9/20, 노동신문)

- 북한이 강원도 세포등판에 5만여 정보(1정보는 3천평)의 인공 목초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1년 만에 끝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전함.
- 신문은 ‘젊어지라 복 받은 대지여’란 제목의 정론에서 “세포등판에서 드디어 인공 풀판(목초지) 개간이 끝났다”며 “우리의 개척자들은 5만여 정보의 묵은 땅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한꺼번에 정리했다”고 밝힘.

● 북한, 작년부터 농민 잉여 생산물 자유처분 허용(9/21, 도교신문)

- 북한이 농민이 목표를 초과한 잉여 수확분을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허용하는 농업개혁을 실시중이라고 도교신문이 21일 보도함.
-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이기성 교수가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일본 기자들에게 밝힘.

다. 군사

● 북한, 지난달 신형미사일 엔진 연소 실험(9/17, NHK)

-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엔진의 연소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17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이 지난달 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며칠에 걸쳐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했음을 미국 등이 확인했다고 외교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10년 만에 체신일꾼대회 개최...김정은 서한 전달(9/16,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조선중앙TV는 16일 ‘전국 체신일꾼대회’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체신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서한을 박봉주 내각총리가 전달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16일 4면 거의 전체를 할애해 ‘당의 현명한 영도 아래 끊임없이 비약하는 사회주의 체신’이란 제목으로 국제위성통신국과 광케이블 공장 등 체신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를 여러 건 보도함.

● 북한서 선보인 4D영화관...개장 첫날부터 ‘인기몰이’(9/16, 평양방송)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지난 16일 평양에서 새로 문을 연 입체울동영화관을 소개하며 “입체울동영화는 가상세계의 3차원 입체 영화를 울동의자(움직이는 의자)에 앉아 보면서 현실세계와 같은 즐거움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영화”라고 설명함.
- 영화관의 김성림 소장은 평양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수님(김정은)께서 우리 영화관을 다녀가시고 나서 어제(15일) 하루에만 1천여 명의 인민과 청소년들이 우리 영화관을 찾아왔다”라며 아침부터 많은 주민이 영화관을 찾아왔다고 전함.

- **이베이, 북한 물품 5천여점 경매(9/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서 5천여 점의 다양한 북한 물건이 경매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방송은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베이에서 경매되던 북한 물건이 1천여 점 정도였던 것에 비해 거래량이 4~5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베이에서 거래되는 북한 물건 중 대부분은 화폐나 우표, 기념품 등으로 외국인들이 북한 방문 당시 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 평양에 골프연습장 문 열어(9/17,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7일 “풍치 수려한 평양 청춘거리의 서산(西山)에 골프연습장이 새로 꾸려져 이곳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고 골프연습장에 대해 소개함.

- **해외 北근로자 환경 최악…올 초 러시아서 5명 사망(9/20, 연합뉴스)**
 -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도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북한 사정에 정통한 서울의 한 소식통은 20일 “대부분의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은 작업 현장 인근에 위치한 냉난방도 없는 열악한 숙소에서 8~10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함.

- **WHO “北 장애인구 비율 3.4%…지체장애 가장 많아”(9/20, 미국의소리(VOA))**
 -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의 장애인 비율을 전체 인구의 3.4%로 추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함.
 - WHO는 최근 발표한 “2013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장애”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애인 비율은 2007년 현재 전체 인구의 3.4%로 추정되며 이는 동남아시아 11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밝힘.

- **北 관리, 네덜란드서 감자 연구로 박사 학위(9/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관리가 네덜란드의 대학에서 감자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함.

- 네덜란드 바게닝겐대의 북한 사업 책임자인 마텐 용스마 박사는 북한 관리가 이 대학에 감자 역병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문을 제출, 9월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힘.

● ‘체육강국’ 다짐 北, 비인기 종목 야구도 육성하나(9/2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이 이달 20일부터 남포 야구경기장에서 청년선수권대회의 야구경기가 시작돼 30일까지 열린다고 전함.
- 이달 1일 북한 정권수립 65주년을 앞두고 개막한 이번 청년선수권대회에서는 야구 이외에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권투, 역도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짐.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전국 체신일꾼대회, 9.16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및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김정은 서한’(‘체신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박봉주(내각총리)가 전달(9.16, 중통·중방)
- 박봉주·장정남·김기남·곽범기·주규창·문경덕·로두철·최부일·태종수·전승훈(내각부총리/보고) 등 참가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대화가 이란 핵문제 해결 방도”(9/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문제 해결의 방도는 대화뿐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서방이 이란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조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평화적 해결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며 “대화 만이 문제 해결의 방도라는 것을 최근 시기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 북한 비협조 맹공(9/17, 연합뉴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현지시간) 제24차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중간 구두보고를 통해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유엔 인권위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COI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려는 권한을 (인권위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난 7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유엔 긴급구호기금, 올해 北 수해복구에 210만弗 지원(9/18, 미국의소리(VOA))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 수해 복구사업에 올해 210만 달러(약 23억원)를 긴급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함.
- 이는 CERF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배정한 92만 달러를 포함해 유엔아동기금(UNICEF·62만 7천 달러), 세계식량계획(WFP·42만 2천 달러), 유엔인구기금(UNFPA·13만 1천 달러) 등 유엔 산하기구들에 배정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임.

- **시리아 대통령, 北 김정은 축전에 답전 보내(9/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보낸 생일 축전에 대해 아사드 대통령이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함.
 - 아사드 대통령은 답전에서 김 제1위원장의 축전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당신(김정은)과 당신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 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변영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밝힘.

- **중국, 북한 나진항 통한 남방항로 연장 추진(9/20, 연변인터넷방송)**
 - 중국이 동해의 북한 나진항을 이용하는 남방항로에 대해 노선 연장을 추진한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0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 나진항에서 상하이(上海), 닝보(寧波)를 연결하는 남방항로를 내년 상반기에 푸젠성 취안저우(泉州), 광둥성 광저우(廣州)까지 연장할 계획임.

- **북한, 외교관 등 자녀에 귀국 명령(9/20, 산케이(産經)신문)**
 - 북한이 외교관을 비롯한 외국 체류자 자녀의 귀국을 명령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20일 보도함.
 - 신문은 재외공관이나 국외 무역기업 등에 근무하는 이들의 자녀를 1명만 남기고 이달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 전달됐다고 중국에 머무는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전함.

-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철도 5년 개보수 후 재개통(9/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함경북도 항구도시 나진과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선로가 5년간의 개보수를 거쳐 22일 개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나진-하산 철도 개건구간이 개통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전함.

기타 (대외)

-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역도선수권대회' 폐막식, 9.17 김용진(내각 부총리)·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리종무(체육상)·박명선(인민봉사총국장) 등 참가下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 (9.17,중방)
- 제8차 9월10일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10여 개 단체 남녀 선수 참가), 9.17 태권도전당에서 진행 (9.17,중방)
- 北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일행, 9.16-20 중국측 초청으로 訪中 및 '양제츠(국무위원)·왕이(외교 부장)·장예쑤이(외교부 상무부부장)·우다웨이(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쌍무관계와 조선반도정 세, 6자회담 재개 등 토의" 보도(9.20,중통·평방)
- 또한 중국측이 조직한 9.19공동성명 채택 8돌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여 한반도와 東北亞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北)의 입장을 밝혔음.

나. 6자회담(북핵)

● 北김계관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종합3보)(9/18, 연합뉴스)

-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거듭 밝히면서도 한국, 미국, 일본이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그는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가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개최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화에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은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힘.

● 北-짐바브웨, 무기-우라늄 거래 협정(9/20, 미국의소리(VOA); 네한다 라디오)

- 북한과 짐바브웨가 2009년 무기와 우라늄을 거래하는 비밀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짐바브웨 현지 매체인 '네한다 라디오'를 인용해 20일 전함.
- 짐바브웨의 뉴스 전문 인터넷 방송인 '네한다 라디오'는 지난 17일 짐바브웨군 장교를 인용해 북한이 짐바브웨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짐바브웨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함.

● 北, 평화체제 구축 준비 이미 갖췄다(9/20, 조선신보)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0일 북한이 “냉전시대의 유물인 대결구도의 청산과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준비를 이미 갖췄다고 밝힘.
- 신보는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지난 18일 베이징 ‘6자회담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 “6자회담 안에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북한이 과감한 평화조치를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 北, 김계관 중국 방문 뒤늦게 보도(9/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중국을 방문했던 소식을 보도함.
- 통신은 “중국 측의 초청에 의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일행이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라며 방중기간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을 각각 만나 한반도정세와 6자회담 재개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고 밝힘.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김관진 장관 비난…“도발적 발언, 긴장완화 역행”(9/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한 데 대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논평에서 최근 북한의 ‘주동적이고도 성의있는 노력’으로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보인다고 “바로 이러한 때에 김관진이 안팎을 돌아치며 동족을 헐뜯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은 북남 사이에 조성된 화해의 분위기를 깨고 또다시 대결 국면을 몰아오려는 행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北통신 “南 보수언론이 최고존엄 모략…대가 치를 것”(9/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내 일부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가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비난하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함.
 - 통신은 논평에서 남측이 “어용 매체들을 통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비방중상하는 모략적 악담질을 꺼리낌없이 해대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특대형 도발”이자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또한 국내 일부 언론이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을 인용해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을 은폐하기 위해 9명이 처형됐다고 보도한 기사 등을 문제 삼음.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개성공단 재가동·이산상봉은 남북관계의 결실”(9/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우리의 평화의지는 확고하다’ 제목의 논평에서 “조국통일을 무력행사나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법으로 이룩하자는 것이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의 일관한 주장”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사업 등을 거론하며 “북남관계에서 모처럼 일련의 결실이 이룩되고 있다”고 평가함.

- 통신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에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실은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임.

● **남북, 내달 31일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9/16, 연합뉴스)**

- 남북은 1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내달 31일 개성공단에서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를 24일 열기로 하는 한편 다음주 중에 통행·통신·통관(3통) 및 출입체류 분과위를 열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남북은 회의에서 북측 지역에서의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 이른바 ‘법률조력권’ 문제를 계속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개성공단 생산가동률 56%로 증가…완전정상화 박차(9/17,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재가동 이틀째인 17일 입주기업들은 생산가동률을 높이며 공단의 완전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양호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은 17일 개성공단에서 남측 공동취재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갖고 “입주기업들의 생산 가동률은 16일 53%에서 오늘 56%로 높아졌다”면서 “약 55~60%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함.

● **남북 민간단체, 개천절 행사 평양서 공동 개최 추진(9/17, 연합뉴스)**

- 남북 민간단체들이 올해 개천절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지난 14~1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실무회담을 하고 올해 개천절 행사를 평양에서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측은 내달 3일 단군릉에서 단군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기념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北, 이산가족 상봉 연기 발표…“南이 대결소동” 비난(종합2보)(9/21, 연합뉴스)**

-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둔 21일 갑자기 상봉행사를 연기하

며 우리 정부가 내달 2일로 제안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연기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북남 사이의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힘.

● **北 조평통 “南이 반인륜적…남북관계 南태도에 달려”(9/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연기는 “괴뢰패당의 극악한 동족 대결 책동의 산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보수패당에 있다”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통일부가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에게 대한 반감과 악의를 선동해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반민족적 기도의 발로”라고 반박함.

■ **기타 (대남)**

-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 합의내용(9.16부터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거론하며 “북남관계에서 모처럼 일련의 결실이 이룩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촉구(9.16,중통)
- ‘2013 아시아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 南 원정식(69kg)·임희창(85kg) 1위 등 5일차 경기 (남자 69kg급·77kg급·85kg급) 결과 보도(9.16,중통)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23-9.30

9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평양 문수물놀이장 5일 만에 또 시찰(9/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장을 또다시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문수물놀이장 전경을 바라보면서 “며칠 전에 찾아왔을 때보다 몰라보게 변모됐다”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 **北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설립 확인…역할에 관심(9/23,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보이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라는 새 기구가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23일 함경북도 나진과 러시아 극동 도시 하산을 잇는 철도 개통식을 전한 기사에서 북측 참석자로 리철석을 거명하고 그의 직책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함.

- **北 김정은, 평양 구강병원 건설현장 시찰(9/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문수지구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에 맞춰 완공될 예정인 평양 구강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병원 내 치료실, 약국, 상점, 어린이놀이장 등을 둘러보고 “이번에 병원에 놓아줄 구강종합치료기 30대를 당에서 마련했다”며 “계획된 30대를 설치해주면 하루에 300여명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北 김정은, ‘5월1일경기장’ 개보수 지시(9/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평양 능라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 관람석과 육상주로, 축구장 등의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개건보수의 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5월1일경기장을 세상에 자랑할만한 종합경기장으로 새롭게 변모시키자”며 “우리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경기장으로 훌륭히 개건보수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라고 말함.

● **北 김정은, 완공 앞둔 김일성대 주택단지 시찰(9/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 교유자 살림집(주택) 건설현장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시공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살림방, 부엌, 서재, 부부방, 실내휴식터 등을 둘러봤으며 모든 세대에 액정TV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은, 중정부 수립 64주년 맞아 시진핑에 축전(9/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중국 정부 수립 64주년(10월1일)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명의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 등은 축전에서 축하의 인사를 하면서 양국의 친선관계 강화를 강조함. 또한, 김 제1위원장 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의 역사 발전과 수억만 인민들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지난 60여 년간 중국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과 세인을 놀래우는 커다란 변혁이 이룩됐다”라고 높이 평가함.

■ **김정은동향**

- 9/23, 김정은 黨 제1비서, 문수물놀이장 건설장과 완공단계에 이른 미림삼마구락부 건설장 현지 지도(9.23,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총정치국장)·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박태성·마원춘(黨중앙위 부부장) 동행
- 9/24,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 구강병원 건설장 현지지도 및 ‘구강병원 → 류경구강병원’으로 작명(9.24,중통·중방·평방)
 - 한광상(黨 부장), 박태성·마원춘·허환철(黨 부부장) 동행

- 9/24,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1일경기장을 돌아보고 개건 보수과업 제시(9.24,중통)
 - 최룡해(軍총정치국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로두철(내각부총리), 리영수(黨 부장), 박태성·마원춘(黨 부부장들), 리종무(체육상) 등 동행
- 9/29,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장 현지지도(9.29,중통·중방)
 - 최태복(黨중앙위 비서), 마원춘(黨중앙위 부부장), 태형철(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태희(김일성종합대학 黨위 책임비서)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9.24 제9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장 참관(9.24,중통·중방)
- 김영남, 9.24 세계교회협의회 대표단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9.24,중통·중방)
- 평양학생소년궁전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9.29 리영수(黨 부장)·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김진하(평양시黨 비서) 등 참가下 진행(9.29,중방)

나. 경제

● 北 쌀값 추석 대목에도 안정세…“9·9절 배급 때문”(9/23, 연합뉴스; 데일리NK)

- 23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집계한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추석 이틀 전인 이달 17일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의 쌀값은 지난달 초와 비교해 1kg당 각각 600원, 450원 정도 내린 4천 800원, 5천 100원으로 나타나 쌀값 동향은 지속적인 안정세인 것으로 보임.
- 대북 소식통은 보통 추석 전후 주민들의 쌀 수요가 증가하면서 쌀값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지만 올해는 ‘국가적 명절’인 정권 수립일(9월 9일)을 맞아 평양을 중심으로 식량 배급이 이뤄져 쌀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 쌀 수확 시작…“애국농민 되자” 독려(9/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가을걷이 전투에서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곡창지대인 황해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쌀 수확이 한창이라고 전함.
- 신문은 황해남도 일꾼과 농장원들이 지난 18일 청단군 남촌협동농장에서 쌀 수확 시범 행사를 가졌다며 “이들은 첫 3일 동안 가을걷이 전투에서 성과를 이룩한 기세 드높이 계속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있다”고 선전함.

- **北, 가을철 수확 독려…“곡창지대 앞장서야”(9/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추수철을 맞아 1면에 ‘올해농사 결속에서 다수확 군들이 앞장에 서자’란 제목의 사설을 싣고 “다수확 군(郡)들이 전국의 앞장에 서기 위한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별방(평야) 농촌이 들끓고 있다”며 곡창 지대에서 ‘가을걷이 전투’에 앞장서야 한다고 독려함.
 - 신문은 “평안남도를 비롯해 서부지구 도들에 알곡 10만t 이상의 다수확 군이 적지 않은데 그 군들이 제구실만 해도 나라의 식량문제를 많이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씀’까지 언급하며 곡창지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 **北 평양 문수지구 집중 개발 주목…‘균형발전 노력’(9/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문수지구의 천지개벽이 눈앞에 보인다’는 제목의 글에서 완공 단계에 접어든 문수물놀이장 건설 현장의 열기를 소개함.
 - 신문은 군인 건설자들이 밤낮없이 일하며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문수지구가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함.

다. 사회·문화

- **北, 전국 병원·진료소 총 8천여 곳(9/2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북한 각지에 설립된 의료기관이 병원 2천여 곳, 진료소 6천여 곳으로 총 8천 곳 이상 된다고 선전함.
 - 매체는 산간지역을 포함한 북한 전역에 ‘먼거리의료봉사’(원격의료서비스) 체계가 갖춰져 하급 진료기관에서도 중앙병원과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북한에도 건강식품 생산 ‘활기’(9/23,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3일 평양에서 제9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이 열린 소식을 전하며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는 이번 전람회에 효능 높은 천연건강식품인 생물칼시움영양알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제품을 출품했다”고 밝힘.

- 약학연구소의 김길훈 공장장은 ‘생물칼시움영양알’에 대해 어린이들의 키를 빨리 크게 하고 성인들의 골다공증과 관절염 치료에 특효가 있어 사람들 속에서 반응이 매우 좋다고 소개함.

● 北 “부르주아 사상문화 침투 배격해야”(9/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배격해야 한다’는 글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청소년들 속에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들이밀어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위반하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불량배로 만들려 한다”며 외부로부터의 사상문화 침투를 막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12년제 의무교육 법제화 1년…“시행 준비 박차”(9/2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1주년을 맞아 새 교육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함.
- 내각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의 리관호 제1부상과 김성일 국장은 조선중앙방송 인터뷰에서 새 교육제도에 맞게 교육과정별 목표, 학과목, 과목별 교수요강 등을 정했다고 밝힘.

● 北 통신 “함북 회령서 발해 시기 고분군 발굴”(9/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 궁심동 일대에서 발해 시기의 무덤(고분군)을 새로 발굴했다고 25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발굴을 맡은 사회과학원 발굴팀이 무덤의 축조 상태와 유물들로 미뤄볼 때 발해 시기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궁심(동) 무덤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함.

● 北 체육단체장 잇단 물갈이…후원 강화 움직임(?)(9/29,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는 보통 내각 등 중앙기관이 축구, 농구 등 종목별로 선수들을

- 후원하는데 북한이 올해 스포츠 보도를 늘리면서 체육단체장의 교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26일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윤원철이 귀국했다고 전하며 평양역에 환영 나온 간부 가운데 리룡남 무역상을 조선레슬링협회 위원장으로 소개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나진-하산 철도는 북러관계 발전 이정표”(9/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을 잇는 철도 구간의 재개통이 “나진-하산 철도 개진 구간의 개통은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추동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문화적 연계를 활성화하며 지역 나라들의 공동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함.
 - 통신은 철도의 개통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대규모 협조계획이 현실로 됐다”며 “조로(북러) 인민들과 지역의 공동발전과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협조의 본보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함.
- 北 나선서 ‘국제자전거관광축전’ 열려(9/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3일 국경도시인 함경북도 나선시에서 ‘2013년 노디크웨이즈와싸 중국-조선 국제자전거관광축전’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축전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영국, 스위스의 자전거애호가들이 참가해 자전거로 도로 50km 정도를 달렸고 해안공원 앞에서 행사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했으며 전동철 나선시 인민위원회 국장은 모임에서 “자주, 친선, 평화의 이념으로 우호적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함.

● **北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9/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대 무역박람회인 제9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23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박웅식 조선국제전람회 사장과 서길복 무역성 부상은 연설에서 “전람회가 나라 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고 폭넓고도 다방면적인 경제무역 거래와 상품소개, 과학기술교류 등을 더욱 활발히 벌이는데 좋은 계기”라고 강조함.
-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전람회에는 13개국의 무역회사들이 참가해 CNC 공작기계와 전기·전자 및 화학, 경공업 제품, 식료품, 의료기구, 의약품 등이 전시됨.

● **북한대표 내달 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신청(9/25, 연합뉴스)**

- 제28차 유엔총회의 각국 대표 기조연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북한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공식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우리 측 외교 소식통은 “북한 대표가 실제로 유엔총회장에 나와 기조연설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유엔본부에 공식적으로 기조연설을 신청한 것으로 미뤄 실제 연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北 작년 ‘정치적 안정도’ 개선(9/25, 연합뉴스)**

- 25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의 부재’(PV) 지수는 -0.10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0.32)보다 올라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PV 지수는 정부가 불법 수단에 의해 전복되지 않고 테러를 포함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며 북한의 PV 지수는 조사 대상 200여개 국 가운데 중위권 수준임.

● **러시아 회사, 상반기 北에 코크스탄 450만弗 수출(9/25, 이즈베스티야)**

- 러시아 석탄회사 라스파드스카야가 올 상반기에 450만 달러(약 48억4천

- 만원) 어치의 코크스탄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현지 신문 ‘이즈베스티야’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함.
- 라스파드스카야의 대북 수출액은 이 회사의 올 상반기 전체 수출액의 4%를 차지하는 규모로 북한이 중국, 우크라이나, 한국, 일본에 이어 이 회사의 다섯번째 수출 시장이 됐으며 올해 모두 3천200만 달러 어치의 코크스탄을 북한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北, 주브라질 대사에 김태중 임명(9/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북한의 김태중(66) 전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브라질 주재 대사에 임명됐다고 보도함.
 - **北-몽골, 3년 만에 경제·무역·과학기술협의회(9/25,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몽골이 24~2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의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회의에는 리룡남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무역대표단과 칼트마 바툴가 농업공업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경제무역대표단이 참석했고 양국은 3년 전 체결한 제8차 회의 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제9차 회의 의정서에 서명함.
 - **러, 내년 北 나진항 통해 석탄 120만t 수출(9/25, 모스크바 타임스)**
 - ‘모스크바 타임스’는 25일 러시아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연결하는 철도 개보수 공사를 담당했던 러시아-북한 합작회사 ‘나선 콘트랜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내년에 북한 나진항을 통해 석탄 120만 t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이 관계자는 나진항의 적재능력이 400만t이지만 부두 시설과 새로 연결한 나진-하산 철도를 시험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경로를 통해 120만t 정도의 석탄을 우선 수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올 상반기 캐나다 정착 탈북난민 급감(9/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심사 절차를 강화하면서 올 해 상반기에 캐나다에 난민으로 수용된 탈북자가 21명에 그쳐 작년 동기

- 110명에 비해 급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캐나다에 난민으로 수용된 탈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난민 인정을 막고자 작년 12월 심사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RFA는 설명함.

● **파나마, 北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달러 부과(9/27, 연합뉴스)**

- 파나마 운하 관리국은 쿠바에서 선적한 미신고 무기류를 싣고 이 운하를 통과하다 지난 7월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파나마 운하와 파나마 국민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줬다”며 벌금 100만달러(약 10억7천만원)를 부과했다고 27일 보도함.
- 호르헤 키사노 운하 관리인은 벌금이 이 북한 화물선의 선장과 선주들에게 통지됐다면서 이들이 최소한 벌금의 3분의 2인 약 65만 달러를 낼 때까지 억류에서 풀려나지 않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 **北 학술지, 동남아 국가와 경제협력 주목(9/27, 연합뉴스; 경제연구)**

- 북한의 학술 계간지 ‘경제연구’ 2013년 2호에 실린 ‘아시아 나라들과의 대외 경제협조 관계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논문은 아시아 국가들이 ‘제품 생산구조’가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경제협조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뱃길로 연결돼 있다며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 나라들과 경제협조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평양국제상품전람회서 외국기업 대상 투자설명회(9/27,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북한이 지난 23~26일 열린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첫날에 참가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양 고려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함.
- 조선대외경제협력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외자유치 담당 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외국과의 합영합

작을 통한 대외 경제협력 확대에 큰 관심이 있으며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홍보함.

● **몽골, 北에 밀가루 1천 850t 인도적 지원(9/27, 몬짜메통신)**

- 27일 몽골 몬짜메통신의 인터넷홈페이지는 몽골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밀가루 1천 850t을 전달했다고 밝힘.
- 몽골이 지원한 밀가루는 북한 내 재해지역과 고아원, 병원, 학교 등에 분배됨.

● **올해 1~9월 대북 인도적 지원액 60% 급감(9/28, 미국의소리(VOA))**

- 올해 들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0%나 줄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VOA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4천 572만 달러(약 500억원)으로, 작년 1~9월 지원액(1억 1천 121만 달러)의 41%에 그쳤다고 소개함.

● **北, 월북자 사살 거둬 비난…“국제사회 심판해야”(9/28, 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임진강을 건너 월북을 시도하던 남성을 사살한 사건을 거둬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심판’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삶에 대한 의욕마저 다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월북 시도 남성)가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해 의거 입북을 단행한 것은 달리는 할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었다”며 그를 사살한 것은 남한 정부의 ‘반인륜성’과 ‘잔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함.

● **北, 평양 주재 외교관 체육행사 첫 개최(9/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평양 능라인민체육공원에서 북한 주재 ‘외교단체육경기’가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함.
- 행사에서는 중국대사관팀, 러시아대사관팀, 아시아국가대사관팀, 중동·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대사관팀, 유엔기구대표부팀, 유럽국가대사관

및 협조사무소팀이 축구, 배구, 농구 등 3개 종목을 즐겼으며 박의춘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간부들과 각국 외교관 및 가족, 국제기구 대표들이 경기를 관람함.

● 北, 유엔회의서 “한반도 평화·안정 위해 계속 노력”(9/29, 조선중앙방송)

-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68차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장’은 지난 27일 ‘블러블가담운동’(비동맹운동) 상급회의(장급급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지난 6월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제27차 평양 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9.23-27, 인도네시아·중국·북한) 개막식, 9.23 태권도전당에서 진행(9.23,중통·중방)
- [중통사 논평] ‘美, 미사일요격실험 실시’ 관련 ‘아·태지역에 대한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핵대국들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기도’라고 주장 및 ‘새로운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국력소모와 경제적 혼란 속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9.24,중통)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8월말 서해서 장거리로켓 엔진시험(9/23, 연합뉴스)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지난 8월 25~30일 사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위성사진들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38노스는 닷새 간격을 두고 동창리 발사장을 촬영한 사진 두 장을 분석한 결과 “발사대 위 로켓의 동체로 보이는 물체 1기와 기중기가 등장했고,

추진제 탱크와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놓인 시험대 등도 포착됐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두 번째 사진에서 발사대 주변 초목 색이 불에 그슬린 듯 누렇게 변한 점 또한 이 기간 로켓 실험이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함.

● **北 통신 “美的 ‘北 미사일 위협’ 주장은 신냉전 전략”(9/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드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판 냉전 전략의 산물로, 그 범죄적 성격을 가리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북조선 미사일 위협설은 신냉전 전략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험 등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은 “핵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두 대국을 견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지배질서를 수립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中외교부 “한반도 비핵화, 변치 않는 목표”(9/24,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노리고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조선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안보 관심사”라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중국이 굳은 의지로 추구하는 변치 않는 목표”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홍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련 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국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성의를 보이는 가운데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함.

● **北 리용호 독일 방문…6자회담 재개 시도(9/24, 연합뉴스; 니혼TV)**

- 북한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독일을 방문했다고 니혼TV가 24일 보도함.
- 니혼TV는 리 부상이 북한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내 한반도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며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함.

- **핵실험금지기구, 北 등에 조약 서명 촉구 결의 예정(9/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이달 2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 등에 조약 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 CTBTO의 커스티 한센 대변인은 RFA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을 비롯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8개 국가에 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 13호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 리용호-美 보즈워스 베를린 회동 성사(9/27,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세미나가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 부상과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장일훈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밥 칼린·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등이 참석함.

- **베를린 북미 트랙2 세미나…“상호 입장 파악 주력”(9/27, 연합뉴스)**
 - 25~26일(현지시간)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트랙2(민관) 비공식 세미나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 파악에 주력했다고 미국 측 참석자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26일 베를린 시내 한 호텔에서 세미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긍정적으로 나서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면서 “북한 역시 워싱턴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함.
 - 조엘 담당관은 그러나 6자 회담 재개에 관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에 관해서는 “북한이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힘.

- **北대표, 유엔 회의서 “전제조건 없는 핵협상” 요구(9/28, 평양방송)**
 -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가 전제조건 없는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평양방송이 28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장’은 지난 26일 비동맹그룹 주도로 열린 핵군축에 관한 유엔 고위급회의 연설에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 없는 입장”이라고 밝힘.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 ‘대북 원칙론’ 또 비난…“남북관계 파국 원인”(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북남관계 파국을 조장하는 반통일적인 원칙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정부의 원칙론이 본질적으로 ‘반공화국 대결정책’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반통일적인 원칙론에 매달리며 동족대결의 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 정부의 원칙론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견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며 “‘대화 있는 대결’ 속에서 어떻게 대화와 접촉, 내왕과 협력이 동족으로서의 정과 뜻을 나누는 화해와 단합의 장으로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 **北 “南언론이 최고 존엄 모독” 연일 비난(9/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우리의 최고 존엄 위에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우익보수세력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비방 중상하는 엄청난 대결망동으로 민족화해의 길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보수언론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이 나서서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 ‘인민적 지도자의 의미 부각’이 어찌고저찌고 횡설수설하면서 지어 그 무슨 ‘처형’을 떠들며 하늘을 향해 주먹질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함.

● 6·15북측위, 南 ‘원칙론’ 비난…“공동선언 존중해야”(9/24,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회는 24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남한 정부의 ‘동족대결책동’으로 남북관계에서 대결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남조선 괴뢰당국과 어용보수언론이 ‘대화 있는 대결’에 매달리면서 ‘원칙론’ 나발을 불어댈수록 남북관계는 더 엄중한 지경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북남관계 해결의 출발점은 북남 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이라고 밝힘.

● 北 신문 “南 보수언론 설치면 남북관계 결판”(9/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북남관계가 또다시 찬 서리를 맞게 된 것도 보수언론의 대결선동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보수언론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 재앙거리”라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관계가 비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동족대결을 선동하는 보수언론의 망동을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보수언론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고 주장함.

● 南 ‘대북 원칙론’ 비난…“일방적 흑백논리”(9/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6일 ‘흩어진 가족 상봉행사 연기, 북남관계 꼬이게 만든 대북 원칙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통과 합의를 굴종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의 변화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원칙론은 사실상 흑백을 가르는 승패의 논리, 민족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는 대결의 논리”라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 정부는) 남측은 ‘정상’이고 북측은 ‘비정상’이라는 선악 개념을 북남관계에 적용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6월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급’ 논란으로 무산된 것도 이런 원칙론 때문이라고 주장함.

● 北 “南, 이산상봉 연기 책임 합리화” 비난(9/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인도주의자로 둔갑한 철면피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보수 패당은 ‘이산가족 때려 금강산관광 얻으려는 성동격서’니, ‘천륜을 끊는 행위’니 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한편 기만적인 ‘이산가족 위문’ 놀음까지 벌이며 교활하게 놀아내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 것은 북한의 관계개선 노력이 대결에 악용되는 현실 때문이라며 “인도주의 문제를 비롯한 북남 사이의 화해, 협력사업의 판을 깬 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 괴뢰 패당”이라고 주장함.

● 北 조평통, 월북자 사살사건 비난(9/26,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6일 최근 우리 군 당국이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던 40대 남성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조평통은 “삶의 막바지에서 살길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로 들어오려는 무고한 주민을 무참히 학살한 괴뢰 패당이야말로 인두겁을 쓴 야만”이라며 “괴뢰당국은 반인륜적 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만행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남북관계 위기는 南 태도 따른 필연적 산물(9/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북남관계의 현 위기는 필연이었다’라는 글에서 “북남관계가 대결과 긴장 격화로 뒷걸음치는 원인은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린 괴뢰패당의 책동에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우리 정부의) ‘원칙론’은 ‘대화 있는 대결’을 ‘발전적인 남북관계’로 만들려는 반동적인 대결론”이라며 “북남관계의 현사태는 시작부터 남북대화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이를 파괴하기 위해 책동한 괴뢰패당의 (태도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라고 지적함.

● 北, 류길재 장관 발언 비난…“남북관계 악화 부추겨”(9/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남북관계 악화를 부추기는 “오만불손하고 대결적인 망발”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는 쓸개 빠진 망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류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결본성’을 드러냈다고 “(남한 정부가) 북남관계의 현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주장함.

● **北 조평통 “최고존엄·체제 비방자 징벌할 것” 위협(9/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체제에 대한 모독이라며 “최고존엄과 체제를 비방증상하는 자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주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북한의 불안정성 및 붕괴 가능성이 언급된 데 대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비방증상하는 광대놀음을 벌였다”고 비난함.

● **北서 재입북 탈북자 또 좌담회…“南은 암흑사회”(9/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재입북자들이 좌담회에 나와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한국으로 끌려갔었다며 한국을 ‘암흑사회’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통신은 “괴뢰패당의 유인납치 책동에 의해 남조선에 끌려갔다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주민들”과의 좌담회가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진행됐다고 하며 이들의 발언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좌담회에 나온 박진근(49)씨와 장광철(33)씨는 각각 2011년 10월과 지난해 3월 한국에 들어와 살다가 지난 7월과 최근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밝힘. 장 씨는 “지금 공화국의 북부 국경 일대에는 인신매매 거간꾼들이 수많이 돌아치며 우리 주민들을 노리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각성된 우리 주민들이 저들의 유인납치 행위에 잘 걸려들지 않자 먹잇감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추태까지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 ‘법률조력권’ 합의 못해(9/26, 연합뉴스)

- 남북은 26일 개성공단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북측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는 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법률조력권과 관련, 남북은 서로 다른 법 체계에서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며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위법행위 발생시 조사문제 같은 사안은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한두 번 정도 회의를 더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명단 교환(9/27, 연합뉴스)

- 남북은 27일 오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30일부터 가동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사무처 인력의 명단을 교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우리측에서는 이주태(47)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부이사관)을 사무처장으로, 총 8명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며 북측에서는 사무처장을 맡은 윤승현(49)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협력부장과 4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됨.

기타 (대남)

- 우리 정부의 ‘對北 원칙론’을 “교활한 대결정책,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근본요인”이라고 비난 지속 및 ‘원칙론에 계속 매달린다면 민족의 준엄한 심판’ 주장(9.23, 중통·노동신문·중방)
- [중통 논평] 南 언론의 ‘리설주(*김정은 부인)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최고 존엄 모독행위”라고 再비난 및 “태양의 존엄은 그 무엇으로써도 훼손시킬 수 없다”고 ‘김일성 일가 神聖·성역화’ 강조 (9.23, 중통)
- “괴뢰패당이 ‘대화 있는 대결’을 추구한다는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우리(北)가 그것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것이 바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게 된 이유’라고 주장 (9.25, 중통·중방·노동신문)
- [중통 논평(9.25)]우리 국방부 장관의 발언(4세대 전쟁정책, 전술적 대화공세 등)에 대해 ‘분별력마저 상실한 대결광의 도발방언’이라고 비난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하루 빨리 제거 되어야 한다’고 주장(9.25, 중통)
-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성명(9.26), ‘南 괴뢰패당의 종북척결 소동’은 “대화상대방과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적대의식 발로”라며 ‘동족대결과 파쇼폭압소동 반대 및 남북 공동선언 이행투쟁’ 선동(9.26, 평방·중통)

- [중통 논평] 南 보수패당이 이산가족 위문 놓음까지 벌리고 있다’며 이는 ‘이산가족 상봉 연기 책임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략선전’이라고 ‘남한 책임’ 전가(9.26, 중통)
- 【중통 논평(9.28)】 탈북자 단체들의 ‘빠라 살포’(9.7, 경기 강화군) 관련 ‘미국과 南 보수패당이 인간 오작품들을 反공화국 대결소동에 내몰고 있다’며 “인간쓰레기들의 망동과 그를 배후조종하고 묵인하는 괴뢰패당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9.28, 중통)

10.01-10.06

10 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일성대에 ‘20대 김정일’ 동상 제막(10/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종합대학 설립일(10월 1일)을 맞아 이 대학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대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세웠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통신은 “장군님(김정일)의 동상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 하시던(재학하던)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했다”고 밝힘.
 - 1일 열린 동상 제막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막사를 함.

- **北 김정은, 스키·승마복 견본 점검(10/3,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새로 제작한 스키복과 승마복을 점검한 사실이 2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TV가 2일 오후 내보낸 새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102 2013. 9)’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주민과 청소년들이 입을 승마복과 스키복 견본을 살펴봤으나, 북한 매체는 지난달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승마복 도안을 보고 “우리 인민들의 요구에 맞고 운동에 편리하게 승마복의 색깔과 형태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스키복 견본을 살펴보고 마식령스키장에서 주민들이 스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TV는 전함.

- **北 김정은, 완공 앞둔 평양 아동병원 건설현장 시찰(10/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문수지구의 아동병원 건설현장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이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시공 상황과 의료설비의 설치 상태를 점검했다고 전함.

-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홍·마원춘·허환철 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최근에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구강병원과 함께 아동병원도 전문병원으로서의 체모를 훌륭히 갖췄다”며 “이 병원은 우리 당의 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병원”이라고 말함.

■ 김정은동향

- 10/4, 김정은 黨 제1비서, ‘아리랑’ 공연 참가자들에게 ‘감사’ 전달(10.4,중통·중방)
- 감사 전달 모임, 10.4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 및 김기남이 ‘김정은 감사’ 전달
- 10/6,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 앞둔 아동병원(연건축면적 3만2,800㎡, 6층) 건설 현장 시찰 및 “옥류아동병원”으로 命名(10.6,중통·중·평방)
-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박춘홍·마원춘·허환철(黨 부부장)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부자의 태양상(환하게 웃는 모습의 초상화) 모자이크 벽화(불패의 일심단결 천만년 영원하리) 준공식, 10.6 리일환(평양시당위 비서) 등 참가 下 진행(10.6,중통)

나. 경제

● 北노동신문, ‘감자농사혁명’ 15주년 선전(10/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감자농사 혁명’ 15주년을 맞아 농업부문의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당의 감자농사혁명 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북한의 대표적 감자 산지인 양강도 대흥단군이 ‘과학농법’으로 영농기술을 개선해 자체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개함. 그러면서 대흥단군의 생산 경험을 일반화해 식량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인민 생활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당의 요구라고 강조함.

● 北 8월 중국산 곡물 수입 전월대비 16.5% ↑ (10/1, 연합뉴스)

- 지난 8월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이 7월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중 교역동향’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8월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쌀, 옥수수 등 곡물량은 2만 6천 804t으로 전달 2만 2천 988t보다 16.5% 늘었음.

● “북한 올해 대풍년…식량난 나아질 듯”(10/1, 연합뉴스)

- 올해 북한에 보기 드문 풍년이 들어 만성적인 식량난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1일 여러 매체를 인용해서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의 농업 사정에 밝은 중국 내 소식통은 1일 “올해 북한에 큰 풍년이 들어 곡물 생산량이 최대 53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북한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지만 예년에 비해 태풍과 같은 큰 자연 재해가 없어 곡물 작황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전함.

다. 군사

● “북한, 올 3월 총련에 전쟁대비 지시”(10/3, 요미우리 등)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올 3월 북한 당국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에 전쟁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일 보도함.
- 일본 공안당국에 따르면 허종만 총련의장은 지난 3월 25일 총련 간부회의에서 “김정은 원수가 만일의 경우 전면전쟁에 돌입할 것을 명령하였고, 활동가들은 조국호위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조국 통일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연설함.

라. 사회문화

● 北, 대규모 매스게임 ‘아리랑’ 공연 폐막(10/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매스게임)인 ‘아리랑’ 공연이 폐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일 전함.

- 방송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60돌을 맞아 7월 22일 개막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9월 30일 폐막했다”라며 이 기간 130여만 명의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힘.

● **北서 ‘노인의 날’ 기념 체육·문화행사 잇달아(10/1, 노동신문)**

- 북한은 1일 ‘국제노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신문은 “국제노인의 날을 맞으며 각지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유희경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평양에서 구역별로 노인들의 배구와 장기, 윗놀이, 낚시경기가 열리고 있다고 밝힘.

● **北, 세계대회 우승 태권도선수단 표창(10/1, 조선중앙통신)**

- 북한당국이 지난 7월 불가리아에서 열린 제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와 감독, 관계자들을 표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이번 대회는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개최한 대회로, 80개 국가에서 1천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ITF는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 국제대회와는 별개로 보통 2년에 한 번씩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함.

● **北, 리모델링한 평양체육관 개관(10/3,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현대적으로 개보수된 평양체육관이 3일 개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개관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고위간부와 건설자, 체육성 간부, 평양시민들이 참석함. 박봉주 총리는 개관사에서 “모든 일꾼과 근로자들이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이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

● **北, 평양에 체육인 전용아파트 건설(10/3, 조선중앙통신)**

- 체육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북한이 체육인을 위한 전용주택을 건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함.

- 통신은 평양 보통강 기슭에 ‘체육인 살림집’(주택)이 건설돼 입주가 시작됐다고 보도함. 또한, 체육인 아파트는 가정용품과 고급가구를 일식으로 갖췄으며 진료소와 식당, 세탁소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됐다고 통신이 전함.

● “유엔,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10/4,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또다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4일 전함.
- FAO는 3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10월호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부족국가 중에 포함했으며 지난 7월 보고서 발표 때와 비교해 북한의 식량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밝힘.

● ‘평양 공화국’ 북한서 지방 행사 줄이어…왜?(10/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는 그동안 ‘평양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 평양에 대한 집중현상이 심했으나 지방도시에서 최근 스포츠, 경제, 교육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어 주목된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에서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 C급 감독교육이 진행됐다고 강원도 내 축구감독과 지도교원들이 이론과 실무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개건된 ‘평양체육관’ 개관식, 10.3 박봉주(내각총리, 개관사)등 참가(10.3,중통·중방)
- 박봉주,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광범기, 문경덕, 로두철, 김용진, 김인식(내각 부총리), 리용수, 리종무(체육상), 오금철(군상장) 등 참가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일본인 ‘성묘 방북’ 중단 시사”(10/1, 자유아시아방송(RFA); NHK)
 - 북한 당국이 북한에 매장된 일본인 유족들의 방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NHK 방송을 인용해 1일 보도함.
 - 일본인 유족들의 방북에 동행한 NHK 방송은 북한 당국자가 “일본인 매장지에 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다”며 올해 안으로 유족들의 방북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함. 이 당국자는 유족들의 방북이 계속되려면 일본 정부가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을 위한 회담에 나서는 한편 일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유골을 북한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덧붙였다.

- 北 통신 “日 ‘총독정치’ 죄악 청산해야”(10/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일제의 ‘총독정치’ 실시 103주년을 맞아 1일 일본에 과거 청산을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총독정치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1910년 8월 강도적인 방법으로 불법, 비법의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그해 10월 1일부터 조선민족 멸살을 노린 가장 야만적이고 약탈적인 식민지 폭압 통치에 매달렸다”라고 지적함.

- 北 신문 “북중 친선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10/1,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1일 중국의 정부 수립 64주년을 맞아 북중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민주조선은 ‘광활한 미래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중국인민’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조중(북중)친선관계를 대를 이어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힘.

- **北매체 “한미방위조약은 침략정책 산물…폐기해야”(10/1,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은 1일 이 조약이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침략정책의 산물”이라며 폐기를 요구함.
 - 신문은 ‘폐기해야 할 침략적, 대국적인 조약’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해 남조선을 발판으로 전 조선을 정복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북한, 중국서 애니메이션 활용해 자국 홍보(10/2, 중국신문사)**
 - 북한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 애니메이션 박람회에 참가해 자국 이미지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2일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 대외전람총국은 지난달 29일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에서 개막한 ‘제8회 중국·스자좡 국제 애니메이션 박람회’에 조선예술영화제작소와 조선중앙미술창작사 등이 제작한 극장·TV용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출품함.

- **“北서 크리스마스 보내는 관광상품 등장”(10/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외국인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관광 상품이 처음 등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함.
 -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대동여행사’는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관광 상품에 대해 “크리스마스를 북한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北서 중학생 러시아어 경연…러 대사 축하연(10/3,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중학생 러시아어 경연이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렸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평양외국어대학 러시아어센터에서 열린 이번 경연은 북한과 러시아의 수교 65주년(10월 12일)을 기념한 행사로, 평양시내의 제1중학교와 각지 외국어학원들에서 선발된 학생 30여 명이 참가함.

- **北 신문 “日 ‘적극적 평화주의’는 해외침략론”(10/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당국자들이 최근 국제안보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한 데 대해 기만적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평화 간판을 들고 국제사회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반동들이 떠드는 ‘적극적 평화주의’ 타령은 곧 뒤집어놓은 적극적인 해외침략론”이라고 주장함.

- **北 김영남 “미국이 적대정책 포기할 때 경제발전 가능”(10/4, 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평양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위원장은 게리 프루잇 AP통신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적 목표는 경제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함.

- **北 신문, 북중수교 64주년 맞아 양국관계 강화 재천명(10/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북중 외교관계 수립 64주년을 맞아 양국 친선관계 강화, 발전 의지를 거듭 천명함.
 - 신문은 ‘친선관계 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60여 년간 조중(북중) 두 나라는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호상 긴밀히 지지협조하면서 친선의 유대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왔다”고 자평함.
 - 또한 양국은 “피로써 맺은 친선” 관계로 “전우보다 더 굳건하고 공고한 관계는 없다”며 “이런 특별한 관계로 이어졌기에 두 나라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친선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임.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10.4 만수대의사당에서 美 AP통신사 대표단(단장 : 게리 프루잇)과 담화(10.4, 중통·중방) · 美 AP통신사 대표단, 주체사상탑·만수대창작사 참관(10.4, 중통·중방)
- 北 대표 단장, 9.27 유엔 ‘비동맹국가 상급회의’ 연설에서 ‘평화와 안정 수호 노력 지속’ 및 ‘6.15·10.4선언 기치높이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 강조 (9.29, 중방·중통)

- 美 정부의 '비핵세계' 구상은 "핵우위에 의한 세계제패 야망실현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병풍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실질적인 핵무기철폐 용단" 주장(9.29,중통·민주조선·평방/눈감고 아웅 하는 격의 '비핵세계' 타령)
- 김영남, 9.30 '中-朝 우호협회 대표단'(단장: 우동허(武東和) 회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9.30,중통·중방)
- 박길연(외무성 부상) 北대표 단장, 10.1 유엔 총회 제68차 회의 전원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유엔군 사령부를 군사적 전략실현 이용 및 적대시정책 청산' 등 강조(10.3,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 영변 원자로 온배수 방출…재가동 증거”(10/3, 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5MW급 가스 흑연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됐다고 미국 연구소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달 19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배수관에서 온배수(hot waste water)가 배출되는 것이 목격됐다고 설명함.

3 대남 동향

- **北, 류길재 장관 발언 또 비난…“정치적 도발”(10/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극단적 대결관이 낳은 망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최근 경남대 특강에서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는 것처럼 북한을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동족과의 대화 마당을 ‘체제변화, 제도전복’ 야망 실현을 위한 대결공간으로 악용해온 저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도 ‘대결 속심(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 녀두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류 장관이 지난달 25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회의 연설에서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음.

- **北조평통,朴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비난(종합)(10/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변화’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가 우리의 핵문제를 떠드는 것은 미국과 야합해 우리를 무장해제해 북침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발”이며 “변화를 운운하는 것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해 보려는 해괴한 망언”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오늘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규탄받아야 할 당사자는 미국과 괴뢰패당이며 변해야 할 대상은 현 남조선 당국”이라면서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적 언행에 계속 매달리는 경우 선임자 이명박 역도와 같은 수치스러운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南단체 ‘북한인권백서’ 비난(10/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일 남한 민간단체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발간한 북한 인권에 관한 백서를 ‘존엄과 체제’에 대한 모독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 패당이 벌려놓은 ‘2013 북한인권백서’ 발간놀음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며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려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6·15실천 남·북·해외위 “공동선언 이행” 촉구 증문(10/3,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10·4선언 발표 6주년을 하루 앞둔 3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3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에서 10·4선언을 민족사적 사변으로 평가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이행하는 것을 조국통일실현의 근본문제로 틀어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이 전함.

- **北조평통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체제대결각본”(10/3,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우리 정부가 지난달 마련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체제대결의 각본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에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 10·4선언에 명시된 내용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지적함.

- **北 10·4선언 6주년 맞아 “反통일세력 도전 물리치자”(10/4, 노동신문)**
 - 북한은 10·4 남북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노동신문을 통해 ‘10·4선언’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라며 이를 기치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자고 강조함.
 - 신문은 1면 사설에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 대강,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라며 “10·4선언은 김정일 동지의 애국 헌신과 노고에 의해 마련된 결실”이라고 주장함.

- 또한, “10·4선언 채택 이후 지난 6년간은 북남선언들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했다”라며 남북 간 다양한 대화와 협력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으로 좌절을 겪고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함.

● **北국방위, 차대통령 실명비난…“核병진노선 변함없다”(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가 4일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며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발표한 성명에서 “박근혜와 그 일당이 그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미명하에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체제전복을 노리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이 전함.
- 대변인은 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가 정한 목표를 따라 우리식대로 세계가 부러워하게 강성한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굳게 틀어쥐고 변함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바 ‘병진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함.

● **北, 한미일 해상훈련 비난…“핵전쟁책동에 강력대응”(10/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대화와 평화의 파괴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연합해상훈련에 핵항공모함을 투입하는 것은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정세를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위협천만한 망동”이라고 주장함.
- 이어 “우리는 대화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있다”며 “우리는 대화와 전쟁에 다같이 준비되어 있으며 내외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 책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北 조평통도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10/5, 연합뉴스)**

- 조평통 대변인은 5일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방위 성명을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가는 괴뢰 패당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고 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응당한 경고”라며 “박근혜와 그 일당이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의 비판과 경고를 새겨두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대변인은 특히 통일부가 대변인 성명으로 ‘예의’를 언급해 비난한 것에 대해 “상대방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온갖 험담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는 것이 예의 있고 품격있는 언행인가”라며 맞받아 비난함.

● 北 신문 “南 집권세력, 유신독재 부활 책동 중단해야”(10/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한국의 집권세력이 진보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등 유신 독재 부활을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되살아난 유신 독재의 망령’이라는 글에서 한국의 “현 집권세력은 유신 독재자의 후예들”이라며 이들이 “진보세력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기 위해 파쇼적 폭압의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함.

■ 기타 (대답)

- 北 「조평통」 대변인, 9.29 중통기자 문답을 통해 남한의 ‘北 붕괴가능성’ 거론(아산정책연구원 전문가 회의 등)은 “체제 모독, 허망한 궤변”이라며 ‘北 최고 존엄·체제 비방 중상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 위협(9.29, 중통·중방·평방)
- 10.4선언 채택 발표 6주년 즈음 ‘10.4선언은 평화변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실천강령’이라며 ‘6.15·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이 남북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이라고 주장(9.30, 중통·노동신문/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한 실천강령)
-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 대답(10.2),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10.1, 북 핵문제 및 변화 등)에 대해 “우리(北)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고 우리의 대화 평화노력에 정면도전”이라고 비난(10.2, 중통·중방)
- 남조선 당국자가 우리의 핵문제를 떠드는 것은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무장해제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발임.
 - 우리에게 대해 ‘변화’를 운운한 것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해괴한 망언임.
 - ‘국군의 날’ 기념행사(최신무기 공개 등)에 대해서도 ‘미국과 군사적 공모결탁 강화, 동족대결과 북침 열을 고취하기 위한 대결광대극’으로 비난(10.2, 중통·노동신문·평방/긴장격화를 노린 대결광대극)
- ‘6.15선언실천 북측추진’ 등 「민화협」, 「범민련」 북측본부, 10.2 연합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출로는 남북 공동선언 이행’이라며 南 정부의 ‘원칙론’ 비난과 ‘6.15·10.4선언 이행투쟁’ 천명 등 ‘10.4선언 발표 6주년 입장’ 표명(10.2, 중통·중방)
- 【중통사 논평】 대통령의 對北발언들(국군의 날 기념사, 韓美동맹 60년 기념사, 신뢰프로세스 등) 관련 “괴뢰파당의 동족대결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낸 일대 광란극”이라고 지속 비난하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10.3, 중통/대결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반공화국 광란극)

- 【조평통 대변인 담화(10.3)】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 확정 관련 ‘남북선언들의 이행을 전면 거부하고 반공화국대결과 외세와의 공조로 우리(北)를 압박해 보려는 철저한 반통일문서, 체제대결 각본’이라고 비난(10.3,중통·중방·평방)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44호(10.3)】 1995년 무단 방북해 김일성시신 참배혐의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한 새누리당 취소요구 등 발언 관련 “반민족적, 반인륜적 추태가 아닐 수 없다”며 ‘무죄선언은 지극히 응당한 판결로서 가소로운 소동을 즉시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10.3,중통·중방)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10.5), 통일부 대변인 對北성명(10.4, 대통령 실명거론 비난에 대한 초보적 예의 등 발언)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응당한 경고를 똑바로 새겨듣고 부질없는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박○○ 일당은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再次 실명 비난(10.5,중통·평방)
- 통일부 대변인 對北성명(9.21, 北 이산가족상봉 연기 관련)과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언론들의 對北 보도(‘北 붕괴가능성’) 등을 지속 거론하며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라고 책임 전가 비난(10.5,중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07-10.13

10 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노동당 창건일 앞두고 경축 분위기 띄우기(종합)(10/7,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노동당 창건 68주년 기념일(10월10일)을 앞두고 경축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보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7일 이틀 동안 허정숙 전 당 비서의 글 ‘우리 당 기(旗)와 당 마크에 깃든 이야기’를 나눠 게재함.
- **北 김정은,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 현지시찰(10/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사가 끝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연구소를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중앙버섯연구소 건설을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끝낼 데 대해 지시했는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것을 제질화한 인민군대이기에 기어이 해냈다”며 ‘대만족’을 표시함.
- **北, 김정일 黨총비서 추대일 맞아 ‘당 업적’ 부각(10/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일 동지의 당 건설 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 가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1997년 10월 8일 김정일 동지를 당 총비서로 모신 것은 당 건설 위업 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전함.
 - 또한 “수령 중심의 당 건설 사상과 이론을 제시한 것”,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시킨 것”, “당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 당으로 발전시킨 것” 등을 김 위원장의 중요한 ‘업적’으로 꼽음.
- **北, 김정은 집권 후 당·정·군 주요인사 44% 교체(10/8, 연합뉴스)**
 -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당·정·군의 주요 인사 218명 중 44%인 97명이 교체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합뉴스가 통일부를 인용하여 전함.

- 통일부가 8일 공개한 ‘김정은 체제 이후 주요인사 개편 특징’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해인 지난해에는 68명(31%)을, 올해는 29명(13%)을 교체함.

● **北, 김정은 새 이상화물서 ‘주민 친화적’ 행보 부각(10/8,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이상화 영상물을 공개했으며 김 제1위원장의 주민 친화적인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8일 조선중앙TV를 인용해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지난 7일 오후 6시 50분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장병에게 안겨주신 동지적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록영화가 새로 나왔다”라며 새로 제작한 이상화 영상물 ‘위대한 동지’ 제1부 ‘선군의 한 길에서’를 처음 내보냈고 다음날에도 이 영상물을 재방영했는데 북한이 시리즈로 된 김정은 이상화 영상물을 제작해 방영한 것은 처음임.

● **北 김정은, 軍육종장·일용품공장 현지지도(10/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육종장 건설 현장과 일용품 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건설 현장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1단계 건설을 마무리하라는 자신의 명령이 이행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주도 세밀하게 밀고 나가 이 지구를 현대적인 육종장으로 더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리설주 24일만에 공석 등장…건물 준공식 참석(종합2보)(10/9,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9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주택) 준공식 참석했으며, 이는 지난달 15일 김 제1위원장과 함께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를 관람한 이후 24일 만이라고 연합뉴스가 9일 조선중앙TV를 인용해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김 제1위원장과 리설주의 모습을 방영함.

- TV는 김 제1위원장이 리설주와 함께 교육자 살림집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리설주는 직접 싱크대 수도를 틀어 물이 잘 나오는지 보거나 찻잔을 정리하기도 했으며 김 제1위원장이 동행자들과 말할 때는 웃음을 짓는 자연스러운 모습도 보도함.

● **김정일 넷째부인 김옥 동생, 김일성대 1부총장서 퇴임(10/10,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넷째 부인인 김옥의 동생 김균이 김일성종합대학 1부총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난 6일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감사 수여 명단을 보면 ‘김일성종합대학 1부총장’에 김균 대신 ‘최정호’라는 이름이 명시돼 있음.

● **北 노동당 창건 68주년…김정은에 충성 강조 (10/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노동당 창건 68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체제 결속을 강조함.
- 신문은 1면을 통틀어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혁명적 당이다’는 제목의 사설과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게재함.
- 또한 “올해 당 창건 기념일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의 현명성을 과시하고 원수님의 두리(주위)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의의깊은 계기”라고 밝힘.

● **北 김정은-리설주 부부,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종합)(10/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에서 노동당 창건 68주년을 기념하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번 공연이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혁명적인 예술단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말했으며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게 10월 17일까지 공연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이 전함.

- 이번 공연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 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 당 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태종수 함경남도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함.

● 北 김정은, 새 전투함 기동훈련 참관…위협발언 없어(10/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전투함정들을 둘러보고 기동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새 전투함들의 배수량, 속도,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 성능 등을 점검하고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단기간에 지능화와 경량화 수준이 높은 전함들을 훌륭히 건조했다고 평가함.
- 전함 기동훈련 참관에는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홍영철 당 부부장이 수행함.

● 北 김정은, 평양 방직공장 현지지도(10/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김정수평양방직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종합생산지령실, 인견천직장, 견본실 등 공장 곳곳을 돌아보고 생산 상황과 새로 갖춘 현대적 방직설비들의 기술적 특성, 제품의 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했으며 “방직설비들의 고속도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질 좋은 옷감과 각종 천을 더 많이 생산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밝힘.
- 현지지도에는 박봉주 내각총리, 백계룡 노동당 경공업부장, 박명순 당 중앙위 부부장, 안정수 경공업상이 수행함.

■ 김정은동향

- 10/8,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연건축면적 6,100㎡) 현지지도 (10.8,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최태복(당중앙위 정치국 위원), 리재일(당중앙위 제1부부장), 박태성·황병서(당중앙위 부부장) 동행
- 10/9, 김정은 黨 제1비서, 1단계 건설이 끝난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10.9,중통·중·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차수), 장정남(인민무력부장·육군대장), 황병서·홍영철(黨 부부장) 동행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익철이 사업하는 일용품공장 현지지도 및 공정현대화 과업 제시(10.9, 중통·중·평방)
- 리만건(평안북도黨 책임비서), 홍영철(黨 부부장) 동행
- 10/9,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 10.9 '김정은·리설주' 부부 참가 下 평양 영웅네거리에서 성대히 진행(10.9, 중통·중·평방)
- 박봉주(준공사), 김기남, 최태복, 문경덕, 김용진(내각부총리) 등 참가
- '김정일·리설주' 부부, 10.9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입사할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사진 촬영(10.9, 중통·중·평방)
- 박봉주(내각총리), 김기남·최태복(黨 비서들), 문경덕(평양시 당책), 태형철(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태희(김일성종합대학 당책)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 세포등판 개간전투를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10.10, 중방)
- 10/10, 김정은 黨 제1비서, 10.10 0시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父子 참배(10.10, 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인 차수), 리영길(軍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등 참가
- 10/12,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조한 전투함정들 시찰 및 기동훈련 지도(10.12, 중통·중·평방)
- 리명길, 김명식, 주규창, 홍영철 동행
- 10/14,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 및 미림승마구락부 시찰(10.14, 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마원춘(당중앙위 부부장) 동행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현지지도(10.13,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백계룡(당중앙위 부장), 박명순(당중앙위 부부장), 안정수(경공업상) 동행
- 김정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김은섭(80회)·김창원(70회)'에게 생일상 전달(10.13, 중통·중방)

■ 기타 (대내 경제)

-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 1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10.7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0.7, 중방·중통)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김기남(보고), 문경덕(사회) 등 참가

나. 경제

● 북한, 기업 독립채산제 전환 가속화(10/10,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소들을 중심으로 독립채산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북·중 접경 지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광산이나 제철소 등이 독립채산제 도입을 위해 최근 당국으로부터 자체적인 수출입 권한과 투자 유치를 비롯한 대외업무 권한을 부여받음.

- 北 “대학도 경제강국 건설”…실용기술 개발 독려(10/12,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최근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경제 현장에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전함.
 - 노동신문은 지난 7일 경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연구 기풍’을 소개했는데 ‘대학은 어디까지나 교육 단위라는 관점’을 탈피해 연구를 현실에 접목하는 학풍을 확립했다고 선전함.

다. 군사

- 北 매체, 리영길 군총참모장 임명 확인(10/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전 0시 노동당 창건 68주년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하면서 수행자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리영길을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 대장’으로 소개함.
- 北, 김정은 수행 일부 軍 장성 계급 강등(10/10, 연합뉴스; 노동신문)
 -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자주 수행하던 주요 북한군 장성들의 계급이 강등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0시 인민군 지휘관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을 실었으며 이 사진에서 최근까지 인민군 중장(별 2개)이었던 윤동현, 럽철성, 김수길 등이 소장(별 1개) 계급장을 단 모습이 확인됨.
 - 이들 3명은 올해 들어 김 제1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자주 수행하던 주요 군부 인사들로 인민무력부(우리의 국방부) 소속이라고 뉴스는 전함.

라. 사회·문화

- ‘총살설’ 은하수관현악단 노래 北방송에 등장(10/9,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9일 오전 7시 40분께 은하수관현악단이 부른 ‘조국찬가’를 방송하면서 리명일이 편곡과 지휘를 했으며 황은미 등 5명이 5중창을 했다고 소개함.
- 북한 “마식령 스키장 내년 1월 개장”(10/12, 중국신문사)
 -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이 내년 1월 정식 개장해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북한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2013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참석차 중국 단둥(丹東)을 방문한 북한 국가관광총국 김영일 부국장은 11일 “올해 초 착공해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이 이미 기본적인 규모를 갖췄으며 11월 말 준공될 예정”이라며 “내년 1월에는 정식 운영을 시작해 국내외의 관광객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힘.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美 ‘첫다운 사태’ 비난…“‘反인민정책’의 결과”(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으로 연방정부 첫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반인민적’인 성격으로 인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반인민적 정책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첫다운 사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이행을 위한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공화 양당이 벌인 극한적 대립 때문에 초래됐으며 미국 건강보험 제도가 ‘한심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함.

- **北, 동아시아게임 남녀축구에서 中·日 꺾고 첫 승(종합)(10/7, 조선중앙통신)**
 - 중국 톈진(天津)에서 열리는 제6회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7일 중국을 1대0으로 이겼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앞서 통신은 북한 남자축구 대표팀이 전날 일본을 2대1로 이겨 첫 승리를 이뤘다고 밝힘.

- **룩셈부르크, 대북 식량지원 위해 33만 달러 기부(10/8, 미국의소리(VOA))**
 - 룩셈부르크가 지난달 20일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25만 유로(33만 1천 달러·약 3억 6천만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을 인용해 8일 전함.

- **北, 을미사변 118주년 맞아 일본 규탄(10/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118주년을 맞아 당시 일제의 만행을 ‘반인륜적인 국가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재침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정세론 해설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서술하고 “일본 살인악당들이 저지른 이 특대형의 반인륜적 만행은 전적으로 일본 반동정부의 계획적인 조종 밑에 감행된 국가테러 행위였다”고 밝힘.

- **美여행사, ‘평양서 새해맞이’ 관광상품 출시(10/8, 연합뉴스)**
 - 북한에서 새해를 맞고 전통음식을 맛보는 관광상품이 등장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투어(Uri Tours)’는 최근 북한에서 2014년 새해 전야와 신년 첫날을 보내며 ‘평양식 새해맞이’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내놓음.

- **北 외무성 “美, 대화 거부하고 도발에만 열중”(10/9,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9일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이 북한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적 도발’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한사코 거부하고 군사적 도발만을 일삼고 있다”고 밝힘.

● **中 시진핑, 北 김정은에 답전…“친선관계 발전”(10/9, 조선중앙통신)**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보낸 축전에 답전을 보내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명의로 된 이 답전은 김 제1위원장의 축전에 사의를 표하며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정세하에서 두 당,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전통적인 중·조(북)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발전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힘.

● **中 유람선, 내년부터 北 ‘접안관광’ 가능해질 듯(10/11,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1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정부의 여우저권(尤澤軍) 관광국장은 전날 북한 측과 중국의 ‘접안관광’에 대해 세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접안관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힘.

● **북·중, 단둥 종합박람회 ‘업그레이드’(10/11, 연합뉴스)**

- 11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2013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는 지난해 첫 박람회 때보다 규모가 크게 확대돼 이목을 끌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박람회의 주행사인 북·중 상품교역전람회에 올해 132개 기업과 무역회사를 파견했는데 지난해 100개사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임.

● **케네스 배 모친, 아들과 평양병원서 상봉(종합)(10/11,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 씨의 어머니 배명희(68) 씨가 11일 평양에서 아들과 상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날 평양에 온 배 씨는 “오늘 오전 병원에서 아들을 만났다”며 “(아들의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함.

● **北 여자축구, 동아시아경기대회 우승(10/11, 조선중앙통신)**

- 중국 톈진(天津)에서 열린 제6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 북한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북한 여자축구팀은 이날 일본 팀을 2 대 0으로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함.

● **北 탁구, 동아시아게임 혼합복식 우승(10/12, 조선중앙통신)**

- 중국 톈진(天津)에서 열린 제6회 동아시아경기대회의 탁구 혼합복식에서 북한이 우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북한의 김혁봉-김정 조는 전날 열린 탁구 혼합복식 결승에서 남한 팀을 4-3으로 제압함.

● **유엔, ‘北 청천강호’ 조사단 쿠바 파견 예정(10/1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불법 무기를 신고 운항하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조사하기 위해 쿠바에 전문가단을 파견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대북제재위의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은 RFA에 전문가단이 오는 21일께 쿠바를 방문해 청천강호에 실린 화물의 구체적인 내역과 북한에 보내려던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北 - 中 정부, 10.8 “새 계획연도 문화교류 집행계획서” 평양에서 조인(10.8,중통·평방)
· 北 황호남(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 中 ‘류홍재’(駐北 중국 대사) 서명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10.9)】 美 항모 ‘조지워싱턴호’ 참가 韓·美·日 해상훈련 실시 거론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우리(北)의 평화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라고 비난(10.9,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 국정원 “北 원자로 재가동…장거리미사일 엔진실험”(종합)(10/8,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8월 5MW급 영변 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하고,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통신 “한반도 비핵화는 ‘유훈’…대화 필요”(10/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며 이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함.
 - 통신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10.9) 7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일관한 정책적 목표’라며 “대화과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 北 국방위 “美는 ‘고립압살조치’부터 전면 철회해야”(종합)(10/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12일 미국 정부에 ‘대북고립압살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지난 3일 불가침조약 언급을 모독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 의미를 똑바로 알고 우리에게 대한 모든 고립압살조치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불변의 정책적 목표로 강조하고 “미국은 무엇보다도 부당한 구실을 만들어 조작해낸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제재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거론함.

3 대남 동향

- **北 노동신문 “南 ‘대화있는 대결’은 유신독재의 구호”(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대화 있는 대결’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유신 독재 세력이 들고 나왔던 대결구호”라고 비난함.
 - 신문은 ‘대화 있는 대결은 북침 야망의 발로’라는 개인 필명 글에서 “원래 ‘대화 있는 대결’은 북남 사이에 7·4공동성명이 발표돼 대화와 협상의 문이 열렸을 때 유신 독재세력이 들고 나왔던 대결구호”라고 주장함.
 - “유신 통치배들은 ‘대화 있는 대결’을 힘으로 뒷받침한다고 하면서 무력증강과 북침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으며 북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었다”며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불신과 대결로 치닫고 분열의 장벽은 더욱 높이 쌓이게 됐다”라고 덧붙임.

- **北 조평통, 한미안보협의회에 반발…“선제공격” 위협(10/7, 조선중앙방송)**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담화를 통해 7일 한미가 최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강력한 대북억제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엄중한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선제공격”에 대해 언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전함.
 -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에서 SCM에서 북한 핵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에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군사적 모의는 조선반도에서 대화, 평화 과정을 파탄시키고 긴장을 격화시키며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엄중한 도발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방송이 전함.

- **北 김기남 “남북관계, 엄중한 도전에 직면” 증문(10/7, 연합뉴스)**
 - 북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7일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개선돼 나가던 북남관계는 오늘 또다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비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16주년을 맞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 높이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北, 한미일 훈련 美항모에 반발…軍 동원태세 지시(10/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미·일 해상훈련에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군부대에 작전 동원태세를 지시했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총참모부가 대변인 담화에서 조지워싱턴호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며 “10월 5일 조선인민군 각 군중, 군단급 부대들에서는 최고사령부로부터 이미 비준된 작전계획들을 다시 점검하고 미일침략자들과 괴뢰들의 일거일동을 각성 있게 주시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동원태세를 유지할 데 대한 긴급지시를 접수하였다”고 전함.

● **北 “南부터 비방 멈춰야”…또朴대통령 실명비난(10/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9일 대남 비방을 중단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부터 대북 비방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박근혜 일당은 우리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깊이 있게 새겨듣고 심각히 돌이켜보면서 고쳐나갈 마음부터 가져야 할 것이었다”며 “그런데 예상 외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구차한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으며 저지른 죄행을 회피하고 무마해보려고 획책하면서 더더욱 불손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 ‘대화록 사태’ 비난…“南인사 방북발언 공개” 위협(종합)(10/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여권의 대응에 대해 “우리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측 인사들의 방북 당시 발언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담화록 소동을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으로,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면서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며 남측을 “정치적 패륜무리”, “정치 깡패 집단”이라고 표현함.

● **北, 연방제 거둬 주장…“南 ‘체제통일’ 추구” 비난(10/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연방제 통일 방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남한 정부가 체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연방제는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북한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함.
-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처럼 ‘체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와 ‘북의 변화 유도’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존엄 높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함.

● **北조평통, 한·미·일 해상훈련 비난(10/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이 전날 시작된 데 대해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도대체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용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해 핵전쟁광란을 벌이면서 ‘조난구조’ 훈련이요 뭐요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밝힘.

● **조선신보 “北의 朴대통령 ‘실명비판’은 충격요법”(10/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실명 비난을 “상대방의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의 충격요법”이라고 주장함.
- 신보는 ‘박근혜 실명비판의 진상’이라는 글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에 대해 “대통령도, 청와대도, 통일부도 저들의 ‘원칙’에 따라 세상만사가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집단수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북남관계가 또다시 대결상태로 빠지게 된 요인의 하나는 그의 독선적인 견해를 밀어붙이는 ‘원칙론’에 있다”라고 주장함.

- **北, 통일부 겨냥 “최고존엄 헐뜯으면 징벌” 위협(10/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통일부가 북한 ‘최고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고 있다며 징벌하겠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9일 통일부 당국자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치를 ‘공적쌓기’, ‘애민의 인상 부각’ 등의 표현으로 헐뜯었다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참을수 없는 극악 무도한 중대도발”이라고 비난함.

- **北, 한·미·일 해상훈련 연일 비난(10/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한·미·일 해상훈련과 관련해 “적대세력들은 우리 혁명무력이 취하는 비상한 대응 조치들에 대해 결코 경솔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함.
 - 통신은 ‘전쟁이나 평화냐’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이 훈련에 대해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으로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평화적 노력과 내외여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北 노동신문, 합참의장 후보자 비난…“보복대응”(10/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의 핵 공격에는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북침 핵전쟁 도발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보복대응’을 경고함.
 - 신문은 ‘전쟁 미치광이의 잠꼬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선제공격은 미국과 괴뢰들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우리 혁명무력은 지금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만단의 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담화(10.7)】 제45차 韓美안보협의회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 합의 등에 대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트리려는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우리(北)를 넘보면 무자비한 선제공격으로 최후의 파멸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10.7.중동·중방)

- 우리(北)군대는 그 어떤 핵 선제타격과 군사적 도발에도 다 준비되어 있으며 괴뢰패당이 북침 전쟁도발의 길로 나온다면 주저 없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
- ‘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타격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과 괴뢰들의 흥계의 산물’이라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10.7,평방/북침 핵전쟁 각본들을 종합한 위험한 전략)
-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10.7)】 美 ‘조지 워싱턴’호 참가 ‘韓美 연합해상훈련(10.8~10)’ 관련 ‘인민군 각 군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동원태세를 긴급지시 하였다’며 ‘예상할 수 없는 참사를 빚게 될 것이며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위협(10.8,중통·중방)
 - 미 행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北)가 아니라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 美 ‘조지 워싱턴’호 참가 ‘韓美 연합해상훈련(10.8~10)’에 대해 ‘우리(北)에게 노골적인 핵위협을 가하면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호전적 기도의 발로’라며 “내외 호전광들에게 본때를 보여 줄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10.7,중통·노동신문/핵항공모함도 괴멸의 운명을 돌려세울 수 없다)
 - ‘미 핵항공모함이 왜 남조선에 기어들었는가’ 題下로도 ‘韓美 연합해상훈련’을 “우리(北)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흉심”이라며 “강경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10.7,평방)
- 北 ‘국방委’ 정책국 대변인, 10.8 우리 정부의 ‘北, 대통령 실명 비난’ 등 지적(품격있는 언행구사 등에 “국가원수 지칭문제 해결을 바라다면 먼저 우리(北)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라”고 주장 중통기자 問答(10.9,중통·중·평방)
 - 우리는 박○○와 그 일당의 차후움직임을 지켜보려고 함.
 - 통일부와 새누리당 및 언론들 지적(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 등) 등에 대해서도 “괴뢰들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동족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끝장날 것”이라고 책임 전가 협박(10.8,중통·민주조선/여론을 오도하는 남조선 괴뢰패당)
 - ‘북인권법’은 “반민족적인 대결악법”,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동족대결계획” 및 CBS 등 언론 보도(‘北 이산상봉 연기’ 관련) 등 반복 비난 지속(10.8,평방/사태악화를 부추기는 정치적 도발·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망동 등)
- 【‘조평통’ 대변인 담화(10.10)】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초안 삭제)와 정치권의 음성파일 공개 추진에 대해 “우리(北)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라며 ‘배후에는 박○○가 있다’고 대통령 실명 비난(10.10,중통·중방)
 -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정치적 패륜무리, 정치깡패 집단으로써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무지막지한 망동임.
 -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우리(北) 역시 남조선 위정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비위 맞추는 소리를 한데 대해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10.12)】 통일부 정부입장(北에 1명의 존엄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 등) 발표 관련 “또 하나의 참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중대도발”이라며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자들에 대해 추호도 용서치 않고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재차 위협(10.12,중통·중·평방)
 - ‘최고존엄에 대한 괴뢰들의 도전행위가 각이한 형태로 감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남북관계사상 유례없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최고존엄에 도전하는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지속 위협(10.12,중방/특대형 도발의 대가는 무자비한 징벌)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14-10.20

10 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평양 물놀이장·승마클럽 시찰(10/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의 물놀이장과 승마클럽을 잇달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에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이 9개월 만에 완공된 평양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며 준공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 수조, 한증탕, 샤워실, 편의봉사시설을 살펴본 뒤에는 “구석구석 흠잡을 데가 없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미림승마구락부 내 인공산에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한 정각과 천막휴식장을 세운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 인공 연못 주변에 모금포 모래를 깔고 인공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을 것을 지시함.

- **노동신문, 1면 사설로 “누가 뭐라해도 선군사상” 강조(10/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1면에 게재한 ‘우리 혁명의 지도적 지침인 선군혁명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군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신 선군혁명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전체 당원과 군 장병, 인민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선군절’(8월 25일)에 발표한 담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를 철저히 학습할 것을 주문함.

- **北 김정은 부부, 방북 러시아 관현악단 공연 관람(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5일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수교 65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 중인 21세기관현악단의 파벨 오브산니코브 단장과 나탈리아 이와노브나 세묘노바 행정지배인을 만나 양국 친선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연활동을 치하했음.

며, 제1위원장은 또 러시아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관현악단 성원들과 함께 북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 공연도 지켜봄.

● **北 225국 통일전선부로 편입…총련 영향력 저하땀(10/17, 아사히(朝日)신문)**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지도기관인 북한의 내각 225국(구 대외연락부)이 최근 대남공작부서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로 편입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에서는 과거 자금력이 있는 재일총련과 관계를 맺으려는 기관이 많아 당 대외연락부가 총련을 지도했으나 총련의 자금력 저하에 따라 대외연락부의 북한내 영향력도 줄어들어 수년전에 225국으로 격하됐다고 전함.

● **北노동신문 “사회주의 한길로…제재에 물러서지 않아”(10/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김일성 주석이 일제시대에 결성했다는 ‘트·드’(타도제국주의동맹)의 87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고수와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신문은 1면에 게재한 사설 “트·드가 열어놓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이 세상 끝까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이것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좌우명이며 영원한 승리의 항로”라고 주장함.
- 또한 “지금 미제를 비롯한 역사의 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의 도수를 높이며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우리 인민은 그 누가 압력을 가하고 나아가는 앞길이 험난하다고 하여 선택한 길에서 절대로 물러설 인민이 아니다”고 밝힘.

● **北 고위지도부, 김일성大 교육자주택 방문(10/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고위간부가 19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주택) 가정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은 김일성대 교육자살림집에 입주한 김상옥, 리창국, 리광영 등 교원과 연구사들의 가정을 방문함.

■ 김정은동향

- 10/13,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현지지도(10.13,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백계룡(당중앙위 부장), 박명순(당중앙위 부부장), 안정수(경공업상) 동행
- 10/13, 김정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김은섭(80회)·김창원(70회)’에게 생일상 전달(10.13,중통·중방)
- 10/14,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 및 미림승마구락부 시찰(10.14,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마원춘(당중앙위 부부장) 동행
- 10/16, 김정은-리설주, 10.15 동평양대극장에서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 공연 관람(10.16,중통·중방)
 - 김기남(黨 비서), 인민내무군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창작가 등 함께 관람
- 10/16, 김정은, 10.15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노동당 만세’ 관람(10.16,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김기남(黨 비서),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 성원들, 평양시 인민들 등 함께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저작(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발표 10주년 관련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나가는 길에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이 있다’며 ‘철저한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 관철’ 선동(10.15,중통·노동신문/과학기술발전의 길에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이 있다)
- 北, 10.18 리보익(김정은 고조모) 사망 54돌 즈음 만경대 묘에 화환(10.18,중통)
 - 김기남, 양형섭, 문경덕, 최부일, 김용진(내각부총리) 등
- 김영남·박봉주·최룡해 등 黨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 10.19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입주(김상옥 연구소 소장 등) 가정(김정은이 보낸 액정TV 등 비치) 방문(10.19,중통·중·평방)

나. 경제

- 北, 경제특구 개발 위한 민간단체 출범(종합)(10/1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단체를 만들어 주목된다며 연합뉴스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조직돼 자기 활동을 시작했다”며 “협회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단체들이 조선의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들에 대해 잘 알게 하고 그 진출을 협력해주는 민간급 단체”라고 밝힘.
- 北,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위원회로 승격(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했음을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에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밝혔으나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

● **북한 道마다 경제개발구 설치 추진(10/17, 신화통신)**

- 북한이 도(道)마다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평양발로 보도했음.
- 통신은 16일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린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 개발 평양국제심포지엄’을 소개, 조선경제개발협회 책임자 윤영석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백개의 외국투자기업이 기계, 전자, 경공업, 수산, 제약, 건축자재, 식품가공 등의 생산 분야는 물론 통신, 운수, 은행, 요식 등 서비스업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도에 경제개발구 설치와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北 ‘김정은식 경제개발 시스템’ 속속 구축…성과는(10/17,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이 17일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령은 국가경제개발총국의 격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높이고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규정함.

● **北 노동신문 “바다 양식에 투자 늘려야”(10/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다 양식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독려함.
- 신문은 ‘균중적인 사업으로 해야 할 바다농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시마 등의 바다 양식은 큰 품을 들이지 않고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며 “바다가 양식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계획대로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기타 (대내 경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4호(10.16),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10.16,중통 중방)

다. 군사

- **北,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13년 만에 개최(10/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된다”며 “공훈을 세운 전군의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우리의 국방부) 간부가 대회 참가자들을 직접 맞이했으며 대회는 김정은 체제 들어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0년 중대 정치지도원 대회 개최 이후 13년 만에 열림.

기타 (대내 군사)

-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개최 예고 및 대회 참가자들의 10.17 평양 도착과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등 出迎 환영(10.17,중통·중방)
- 인민군대의 세포인 중대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 된 일당백의 전투대모로 강화하는 데서 공훈을 세운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대회에 참가함.
-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10.17 만수대연덕과 인민무력부 김일성·김정일父子 동상에 헌화(10.17,중통·중방)

라. 사회·문화

- **北 대외용 잡지, 점자책 전문 출판사 소개 눈길(10/14, 연합뉴스; 금수강산)**
 - 북한 월간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출판사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는 입수한 북한의 대외 홍보용 잡지 ‘금수강산’에서 윤원빈 광명출판사 부주필이 ‘나의 인생을 두고’라는 제목으로 쓴 수기가 실렸다고 소개함.
- **혁명가무 줄인 北예술단 中공연서 호평(10/14, 중국신문사)**
 - 북한 문화외교의 주력군인 국가급 예술단이 최근 중국 공연에서 과거와 다른 레퍼토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고 중국 언론이 14일 보도함.
 -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2013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 광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지난 10~12일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3차례

공연한 북한 국립민족예술단이 혁명가무 위주의 기존 레퍼토리에 변화를 줘 관객들의 호응을 얻음.

● **北, 아동·구강 병원 개원…‘인민사랑의 선물’ 선전(10/14,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평양 문수지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건설중이던 옥류 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이 완공돼 13일 나란히 개원한 소식을 14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전함.
- 통신은 두 병원이 김 제1위원장이 인민들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라며 현대식 설비를 갖춘 이번 병원 건설로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더 잘 받게 됐다고 선전함.

● **北 지방마다 버섯공장 건설 붐…“식생활 개선 의도”(10/15,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에서 “버섯을 많이 생산해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나선시에서 버섯공장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라며 이미 기본 건축공사가 끝나고 울타리와 지붕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용해 15일 보도함.
- 중앙TV는 전날에는 양강도의 간부와 근로자들이 혜산 버섯공장을 빠른 속도로 건설 중이라며 버섯공장 건설에 도(道) 혁명전적지관리국, 도 건설건재관리국, 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 식료일용공업관리국, 혜산청년광산 등이 동원됐다고 밝힘.

● **북한, 울봄 탈북자 자백운동 전개(10/16, 마이니치(每日)신문)**

- 북한은 울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시로 탈북자 귀환 및 범죄 고백을 촉구하는 ‘자백운동’을 벌였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6일 베이징발 보도를 연합뉴스에서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자체 입수한 조선노동당 보고서를 토대로 김 위원장이 “적의 반공화국 정찰·모략책동을 철저히 때려부수라”고 지시해 자백운동이 전개됐다고 전함.

- ‘체육강국’다집한 北, 스포츠 부정행위 잇단 징계(10/16, 연합뉴스; 노동신문)
 - ‘체육강국’ 건설을 목표로 체육 발전에 힘을 쏟는 북한이 최근 스포츠 부정행위에 엄격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15일 ‘전국 도(道) 대항 체육경기’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하며 각 도(시)별 종합 순위를 공개했으며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에서는 평양시와 나선시(특별시)를 제외한 10개의 도 및 특별시에서 올라온 팀이 농구, 배구, 탁구 등 10개 종목의 경기에서 시합을 벌였다고 전함.

- 北, 김병훈 前문예총위원장 등 5명 애국열사릉 안치(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병훈 전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중앙위원장 등의 유해가 16일 평양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애국열사릉에서 김 전 중앙위원장과 설명순 전 인민군 협주단장, 조창덕 전 내각 부총리, 최성수 전 인민내무군 장성, 김병팔 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등 ‘열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진행됐다고 전함.

- 北,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준공식(10/1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18일 새로 건설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준공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중앙방송은 중앙버섯연구소가 평양의 대동강 기슭에 건설됐다고 “연건축면적이 6천100여㎡인 버섯연구소는 첨단수준의 각종 연구실과 실험실, 버섯재배장 등 버섯연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힘.
 -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태복·문경덕 노동당 비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준공 연설을 함.

- 北, ‘소년절’ 전국아동문학작품상 신설(10/20, 연합뉴스; 아동문학)
 - 북한이 올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전국 규모의 아동문학작품 공모 행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가 20일 입수한 북한 월간지 '아동문학'(2013년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평양에서 제1회 '전국 아동문학작품 현상 모집' 시상모임이 있었으며 윤두근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장이 모임에서 당선자들에게 상장과 시상품을 수여했고 참가자들은 좋은 작품을 창작할 결의를 다졌다고 밝힘.

2 대외 관계

가. 일반

- **홍콩서 북한 선전포스터 전시회 열려(10/14, 연합뉴스)**
 - 지난 1일부터 홍콩 타이쿠 플레이스에서 시작된 '비밀 장막 뒤의 예술-북한포스터전'은 북한 미술품 수집가인 홍콩인 에릭 윙(40)씨가 자신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라고 연합뉴스가 14일 전함.
 - 전시에는 북한 작가들이 직접 그린 포스터 원본 36점이 출품됐으며 선군정치 찬양과 미국 비난 등 선동적인 내용부터 전통 인사 예법과 민속놀이를 장려하는 계몽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선전 문구를 담고 있음.
- **북한 연결 중국 단둥 새 통상구 건설 순항(10/14, 중국신문사)**
 - 중국이 자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추진 중인 새 통상구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4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단둥~신의주)와 곧바로 연결되는 새 통상구는 차량편으로 대교를 건너 북·중을 오가는 인원과 화물에 대한 출입국, 통관, 검역 등을 담당함.
- **중국 훈춘에 북한산 수산물 가공시설 증가세(10/14, 연변일보)**
 - 중국의 두만강 유역 대북교역 거점인 지린성 훈춘(琿春)시에 최근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해 가공·판매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14일 연변일보 등 현지 매체들이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 훈춘홍하오(洪昊)식품공업무역유한회사의 수산물 가공공장이 지난 10일 훈춘국제합작시범구에 문을 열었으며 공장은 2만 m²의 부지에 1만 2천m² 규모로 지어졌으며 앞으로 북한산 수산물을 가공·판매해 연간 매출이 2억 위안(3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北中박람회서 유엔 제재 北기업 전시관 철거(10/14, 미국의소리(VOA))**

-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열린 ‘2013 북중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에서 북한의 한 기업체 전시관이 유엔 제재대상이라는 이유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방송은 해당 기업이 ‘조선련하기계합영회사’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으며 랴오닝성 당국자들은 중국 외교부의 요청으로 이 업체의 전시 증지를 요구했고, 북한 측은 지난 11일 오후 이에 응했다고 전함.

● **북·중박람회, 16억불 상당 무역·투자의향서 체결(10/15, 중국신문사)**

- 북한과 중국 간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올해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에서 총 93건, 16억 달러(약 1조 7천억원) 상당의 무역·투자의향서(LOI)가 체결됐다고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5일 전함.
- 신문은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20여개국 기업과 1만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14일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35건, 5억1천만 달러(5천 400억 원) 상당의 투자의향서와 67건, 10억 9천만 달러(1조 1천 600억 원) 상당의 무역거래의향서가 체결됐다고 보도함.

● **케네스 배 모친 “아들 3번 만나…건강 나아진 듯”(10/15,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 씨의 어머니 배명희(68) 씨가 15일 이번 북한 방문 중 아들을 세 차례 만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배 씨는 가족성명을 통해 평양에 체류한 5일간 아들을 세 차례 만날 수 있었으며 아들의 건강이 2개월 전보단 나아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고 말함.

● **북한 청년친선대표단 방중…산업현장 등 시찰(10/16, 동북신문망(東北新聞網))**

- 북한의 청년친선대표단 100명이 중국을 방문해 산업현장과 대학 등에 대한 시찰에 나섰다고 중국 언론 동북신문망(東北新聞網)이 6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용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청년친선대표단 일행 100명이 15일 랴오닝성을 방문했으며 대표단은 전날 평양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징(北京)에 도착했으며 구체적인 방중 일정은 알려지지 않음.

● **北 신문, 미일동맹 강화 비난 “세계평화에 위협”(10/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최근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며 이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미일 동맹 강화는 지역의 평화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위험한 침략적 군사동맹 강화”라고 비난하며, 이번 미·일 합의가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전략 실현에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미국과 상전을 등에 업고 아시아 재침략 야망을 이루려는 일본 사이의 군사적 공모결탁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 **북러 수교 65주년 교류행사 활발…양국 친선 ‘과시’(10/1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65주년을 맞아 각종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친선관계를 과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북한은 양국 외교관계 수립일(10월12일)을 앞두고 지난 7일 러시아에 친선대표단을 보낸 데 이어 지난 8~9일에는 하바롭스크에서 북한 영화와 도서, 미술작품 등을 소개하는 전람회를 개최했으며 앞서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3일까지 평양외국어대학에서 ‘평양시 중학생 러시아어 경연’을 열었음.
- 또한 지난달 러시아 극동 하산역과 북한 나진항 간 54km의 철도 구간이 개통됐고, 러시아가 장기임대한 나진항 3호 부두 개보수 공사도 올해 말

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조선중앙통신은 하산-나진 철도 개통을 ‘북러관계 발전과 공동번영 이정표’로 평가하고 양국 간 대규모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함.

- **北, WHO 동남아 사무소장에 명예의학박사학위(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6일 방북 중인 싰리 플리안방창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에게 명예의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싰리 소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명예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가 북한의 원격의료서비스 체계 수립과 심장혈관외과, 즐기세포 등 임상·기초과학 부문을 발전시켜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함.

- **캐나다NGO, 北에 우유용 콩 220t 지원(10/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 민간 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우유용 콩 220t을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이 단체는 최근 평안남도과 강원도 지역 고아원과 탁아소 등에 지원할 우유용 콩 220t을 북한에 보냈으며, 이번 주 지원물품 분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할 예정이라고 전함.

- **오라스콤, 대북사업 때문에 캐나다 진출 좌절(10/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의 대주주인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캐나다 진출 계획이 좌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오라스콤은 캐나다에서 이동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광섬유 투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방송은 전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 내주 미국·영국에서 공청회(10/18, 연합뉴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다음 주 미국과 영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조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힘.

- 3인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는 워싱턴과 런던에서 탈북자 등 경험자 증언을 통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유린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며, 23일부터 시작되는 런던의 공청회에는 증인으로 탈북자들 외에도 여러 비정부기구(NGO) 전문가와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 **北, 외국컨소시엄과 개성에 ‘첨단기술특구’ 개발 착수(10/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 합작해 개성을 첨단기술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외국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이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을 위해 합작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의 유관기관들과 합의했으며 곧 이행에 착수한다고 밝힘.
- **북한, 중국 자동차 업계에 잇단 ‘구매’(10/18, 동남쾌보(東南快報))**
 - 18일 동남쾌보(東南快報)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순수 국산 브랜드인 화타이(華泰)자동차는 지난 8월 북한 나선경제특구에서 열린 국제상품전시회에 참가해 조선나선삼대성합영회사와 자동차 조립 협력의 향서를 체결함.
 - 의향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화타이자동차 측에 SUV와 승용차를 합쳐 총 1천 대의 자동차 구매 주문을 냄.
- **중국 국가부주석, 북한 청년친선대표단 접견(10/19, 신화통신)**
 -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이 19일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청년친선대표단을 접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리 부주석은 베이징(北京)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용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청년친선대표단 일행을 만났으며 “중국과 북한은 절친한 이웃 나라이며, 청년들은 양국 친선관계의 계승자이자 건설자”라고 말함.

■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은 “대화·평화를 운운하며 뒤에서는 핵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 있다(‘케리’ 국방장관, 對北 불가침조약 체결의사 발언↔한미일, 해상훈련)”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라고 ‘靔 한반도정세 미국 책임’ 주장(10.14,중통·노동신문/평화파괴자의 정체는 여실히 드러났다)
- ‘北-中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65차 회의’ 결정서, 10.14 평양에서 조인 및 김용철(전력공업성 부상)→ ‘서인표’(中 국가전력망공사 총경리) 서명(10.14,중통·평방)
 - 중국 대표단(단장 : ‘서인표’), 10.14 귀국(10.14,중통·평방)
- 조선경제개발협회(리철석 부회장) 주최 “특수경제지대 개발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 10.16-17, 양강도 국제호텔에서 진행(10.17,중통·중방)
 - 토론회에는 조선경제개발협회 일꾼들·김일성종합대학 등 여러 단위 교수·경제전문가들과 캐나다·미국·베트남·인도·중국 등 경제학 교수·전문가들 참가
 - 토론회는 특수경제지대 개발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고 실천적 경험과 지식을 체득하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음.

나. 6자회담(북핵)

● 공개·확인된 北핵시설 15개, 대부분 영변에 위치(10/14, 연합뉴스)

- 현재까지 공개되거나 확인된 북한의 핵시설은 평안북도 영변의 원자로 2기와 원자력 발전소 3기 등 총 15개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영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3년 8월까지 공개되거나 확인된 북한 핵시설 현황을 밝힘.

3 대남 동향

- **北 신문 “하태경 의원에 전달 괴소포는 민심의 경고”(10/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사무실에 최근 협박성 소포가 배달된 사건에 대해 남북간 대결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경고”라고 주장함.
 - 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북남대결을 피하며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증오의 대상이며 그런 자들은 누구이든 우리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 **北대남기구 “美항모 서해진입은 핵선제공격 시도”(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16일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에 대해 “노골적인 핵선제공격 시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위원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 항공모함이 동해와 남해상 훈련에 참가하고 ‘최대열점 지역’인 서해까지 진입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그들이 떠드는 ‘불가침’이니 ‘비핵화’니 하는 것이 한갓 위선이고 기만이며 저들의 북침 기도를 가리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보인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유신 선포일 맞아 “南서 유신독재 부활” 비난(10/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유신체제 선포 41주년인 17일 한국에서 과거의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비난함.
 - 신문은 ‘민주화를 가로막는 유신독재체제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글에서 유신체제 선포와 이후의 정치 탄압을 거론하며 “비극은 오늘 남조선에서 그 저주스러운 악몽의 세월이 현실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조평통, 남재준 국정원장 원색 비난(10/17,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7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남북 대결과 북한에 대한 모략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남 국정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정보위에서 한 북한 관련 보고내용을 문제 삼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북남관계 파국으로 인한 내외의 비난을 모면하려면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남조선 인민들의 요구대로 남재준을 제거하고 제명을 다산 괴뢰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남 국정원장을 “박정희 유신정권의 퇴물”, “악명높은 대결 광신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남 국정원장 탓에 남북관계가 “더욱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함.

● 北 선전매체, 박대통령 풍자 영상 게재(10/18,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TV)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가 박근혜 대통령을 ‘유신 스타일’이라고 조롱한 풍자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우리민족끼리TV가 18일 올린 ‘난 유신을 사랑해(난그지움)’라는 제목의 1분35초짜리 동영상에는 ‘5·16 쿠데타’, ‘김대중 납치사건’, ‘인혁당 사건’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의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와 사진, 영상이 이어지는 배경화면 위로 박 대통령을 화자로 상정한 ‘풍자시’가 등장함.

■ 기타 (대남)

- 北 「조평통」 대변인(10.14), 우리 대통령의 해외 정상외교(10.6-13, APEC·ASEAN+3 정상회의) 對北 발언(北 주민들 생활·핵문제 등) 신랄히 비난 및 이번 순방을 통해 “동족대결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하였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왜곡 폄하 담화 발표(10.14, 중방·평방·중통)
-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東北亞 평화협력구상’ 피력(10.10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해서도 “반공화국 국제공조 침략”이라고 비난 공세(10.14, 중통·노동신문·평방/반공화국 대결공조에 환장한 구걸병자)
- 【중통 논평】 통일부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즉각 중단’ 등 對北 촉구 ‘정부 입장’에 대해 “대결격화를 노린 또 하나의 도발행위”라고 재차 비난(10.14, 중통)
- 통일부의 ‘北 최고 존엄·체제 모독(김정은 정치는 공적살기,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 비난 및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아예 파국으로 몰아가자는 것”이라고 공세(10.14, 중방/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극악한 망발)
- 【중통사 논평】 韓美 안보협의회의에서 연설한 국방부장관의 발언(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킬 것 등) 관련 “제법 배심 있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맞춤형

- 억제전략에 의한 핵선제타격이 초래할 것은 저들의 머리 위에 날벼락을 불러오는 참혹한 결말 뿐이다'고 위협(10.15,중통/날벼락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배심)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10.16)】美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서해 진입(10.12)에 대해 “노골적인 핵선제공격 시도”라고 비난하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10.16,중통·중방)
 - ‘핵항공모함의 조선서해 투입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題下로도 ‘조지 워싱턴’호 서해 진입은 “우리(北)에 대한 노골적인 핵공갈이고 북침 핵선제 타격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이라고 비난(10.16,평방)
 -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 對北발언(핵포기, 단호한 대응 등)에 대해 “외세와 反공화국 공조를 강화하여 ‘핵포기’ 야망을 실현하고 동족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반역적 녀두리”라고 지속 비난(10.16,중통·중방·노동신문/사대매국, 북침전쟁 행각의 치마바람)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46호(10.17),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委 보고(10.8 김정은, 3년 내 무력통일 공언 등)에 대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신랄히 비난 및 “국정원 해체” 주장(10.17,중통·평방)
 - 【중통사 논평】 대통령 동남아 순방中 北核발언(국력을 핵개발에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 관련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의 핵을 말살하려는 민족배신자의 녀두리, 정치적 근시안의 무지의 발로’라고 실명거론 지속 비난(10.18,중통/민족의 재보도 가릴 줄 모르는 정치적 근시안)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21-10.27

10 월

4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가. 일반

나. 6자회담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완공된 미림승마클럽 시찰(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개월 만에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클럽)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미림승마구락부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승마봉사소, 실내 승마훈련장, 승마지식보급실 등의 여러 건설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대상들이 당이 바라는 기준에 도달하였다”며 만족을 나타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 금수산태양궁에 외국인은 ‘자기 예법 따라’ 참배(10/21, 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를 위해 매년 두 달간 휴관하고 외국인 참배 방법도 법에 명시한 것을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의 ‘금수산태양궁전법’이 궁전의 위상과 관리·운영 방법, 방문객의 참배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이 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전체 조선 민족의 태양의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는 데 이바지한다”고 법의 목적을 규정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軍 중대장대회 연설…“黨중심 단결하자”(종합)(10/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초급 간부들이 참석한 인민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노동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2~23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당 중앙의 두리(주위)에 굳게 단결해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나가며 모든 중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함.

● 北 김정은, 군인예술축전 당선 중대 공연 관람(10/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무자 예술축전에 당선된 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제36차 군무자 예술축전에 당선된 251군부대·905군부대·565군부대·1821군부대 관하 중대 군인들과 해군 167군부대 관하 잠수함 730호 해병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10/24, 김정은 黨 제1비서, 10.24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관람(10.25,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최부일 등 참가
- 10/27,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제36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10.27,중통)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김창섭, 변인선, 서홍찬, 김수길, 럼철성, 김영철, 조경철, 황병서와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한 모범적인 중대장·정치지도원들 함께 관람
 - 제251군부대, 제905군부대, 제565군부대, 제1821군부대 관하 중대군인들, 해군 제167군부대관하 잠수함 730호 해병들 공연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10.22~23 김정은(개회사 및 폐회 선언) 지도 下 평양에서 진행(10.25,중통·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최룡해 낭독)에 따라 인민군대 강화에 공로를 세운 '김상일(중대장)' 등에게 노력영웅칭호와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1급 수여
 - 최룡해(보고),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김창섭, 최부일 등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 10.24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10.25,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최부일 등 참가
-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남도 웅진군의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장송협동농장 등) 현지 요해 및 황해남도 버섯공장 건설장 방문(10.25,중통·중방)

나. 경제

- **北 내각 확대회의 개최…“농업·경공업에 큰 힘 넣자”(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박봉주 총리가 참석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3분기 인민경제계획의 이행을 평가하고 4분기 및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대책을 토의했으며 특히 내각의 주요 과업에 대해 “경제건설의 주타격 방향인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 큰 힘을 넣어 올해 농사 결속을 와닥닥 해제끼고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소비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 노동신문 “올해 각지에 경제개발구 14개 지정”(10/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필요한 때에 유익한 화합’이라는 글에서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지난 16~17일 평양에서 개최한 경제특구 국제토론회를 자세히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 법대의 강정남 박사는 첫날 토론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같은 4개의 특수경제지대들이 이미 전에 나왔고 올해에는 곳곳에 14개의 경제개발구들이 생겨났다”고 밝힘.

- **北 학자 “경제강국 건설 위해 평화적 환경이 필수”(10/27, 금수강산)**
 - 북한의 경제학 전문가 단체인 조선경제학회의 리행호(72) 회장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북한의 대외홍보용 잡지 ‘금수강산’ 10월호를 통해 밝힘.
 - 리 회장은 잡지에 실린 대답에서 “평화적 건설로 나가야 하는 우리는 결코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일촉즉발의 정세속에서도 언제나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왔다”면서 “그 자제력의 근저에는 선군의 막강한 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다. 사회문화

- **WFP “北 함경북도 식량사정 가장 열악”(10/22, 미국의소리(VOA))**
 - 북한 지역 가운데 함경북도의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를 인용해 22일 보도함.
 - WFP는 최근 발표한 ‘북한의 식량과 영양 안보’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을 5단계로 나누면서 나선시, 청진시, 회령시, 무산군 등 함경북도의 절반 이상을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단계로 분류했으며 함경남도에서도 단천시, 신포시, 홍원군 등 3분의 1이 넘는 지역이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단계에 포함됐다고 전함.

- **北 야구 ‘명문’은 기관차체육단…10년째 우승 석권(10/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10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화국선수권대회의 일부 종목 경기들이 끝났다”라며 “야구경기에서 금메달은 기관차체육단 선수들이, 은메달과 동메달은 대령강체육단과 와우도체육단 선수들이 (각각) 받았다”고 밝힘.

- **지난해 북한 결핵 사망률 소폭 낮아져(10/24,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년보다 낮아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함.
 - WHO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북한에서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9명으로, 2011년(10만명당 10명)보다 줄었으나 지난해 결핵 발병자는 인구 10만 명당 409명으로, 2011년 404명보다 다소 늘었음.

- **北, 외자 유치 다양화 시도…‘BOT’ 방식에 관심(10/25, 연합뉴스)**
 - 북한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호(8월15일 발행)의 ‘BOT 방식과 그 발전 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BOT 방식이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대됐고 재정 적자와 채무 부담에 빠진 개발도상국들이 기간시설을 개발하는데 이 방식을 적극 받아들였다고 연합뉴스가 학보를 인용해 25일 소개함.

- 더하여 “(BOT를)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옹계 이용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힘.

● 北 미림승마클럽 준공…“승마 바람 일으키자”(10/25, 조선중앙TV)

- 북한이 25일 주민의 승마 활동을 위한 시설이라고 선전해온 미림승마구락부(클럽)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함.
- 준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문경덕 노동당 비서 등의 고위간부와 군인건설자, 근로자, 청년학생,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이 참석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노동신문, 소치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대(10/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사를 21일 보도함.
- 신문은 ‘소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가 러시아에서 성대히 개최될 2014년 소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조선신보 “시간은 북한 편…美 선택은 협상뿐”(10/2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서 시간은 북한 편이라며 미국에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고 21일 보도함.
- 신보는 ‘조선에 차례진 유리한 시간’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최근 한반도 해상에서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동원한 군사훈련 등으로 도발을 계속하지만 북한 내부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없다고 강조함.
- 이어 “새로운 병진노선이 구현된 조선에서는 공은 이미 미국 측에 가 있으며 시간은 조선의 편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침투되어가고 있다”

며 북한이 강자 입장에서 ‘적대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넉넉함이 생겼고 시간표에 따라 경제건설을 할 체계와 질서가 잡혔다고 주장함.

● **북한, 日 방위상 ‘北미사일기지 타격 발언’ 비난(10/2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미사일기지 타격을 언급한 데 대해 군사대국화를 노린 발언이라고 비난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오노데라 방위상이 지난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기지 타격능력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다며 “방위상의 망발에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함.

● **北 노동신문, 브릭스 경제협력 동향 상세 보도 주목(10/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신흥경제국의 대표주자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근 협력 동향을 전하면서 이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를 전망했다고 22일 보도함.
- 신문은 ‘브릭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기사에서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 등 브릭스 역내 협력 강화 움직임을 상세히 소개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낡고 불공정한 국제 금융체계에서 벗어나 자체의 금융질서를 수립하고 그에 의거해 안전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가 미국 달러 주도의 국제 금융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함.

● **英평가기관, 北 고려항공 ‘최하위 항공사’ 평가(10/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의 항공사 평가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북한 고려항공을 최하위로 평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파나마, 北청천강호 선원 대다수 석방할 것(10/22, 뉴욕타임스(NYT))**
 - 지난 7월 미신고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의 대다수가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보도함.
 - 파나마 정부 고위 외교당국자는 3개월 이상 억류된 청천강호 선원 35명 가운데 33명을 석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파나마 해양경찰이 청천강호에 승선하자 자살을 시도했던 선장과 선장의 측근 1명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함.

- **로드면 방북 동행 美교수 “김정은, 친화력 있는 인물”(10/22, 미국의소리(VOA))**
 -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테니스 로드면의 지난달 초 방북 때 그와 동행한 미국 교수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원만하고 친화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2일 보도함.
 - 로드면 일행에 속했던 조지프 터윌리거 컬럼비아대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줬다”며 이같이 말하고, 방북 첫날 평양에서 로드면이 추진하는 ‘스포츠 외교’를 북측과 논의했으며 다음날 김 제1위원장 전용 별장으로 이동해 이틀 동안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힘.

- **北 신문 “美 위협 노골화…대화도 전쟁도 준비됐다”(10/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유사시 전쟁에 나설 준비도 돼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군사적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과 정찰용 무인항공기 일본 배치 등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그 배경으로 들고 있는데 대해 “설득력이 전혀 없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난함.

- **인도네시아 대통령, 北 김정은에 친서(종합)(10/22, 조선중앙통신)**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북한을 방문 중인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이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친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으며 나탈레가와 장관은 김 제1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덧붙임.
- **北, 日 정치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난(10/2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한 것을 “군국주의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통신은 ‘전범자들을 찬미하는 병든 일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8일 일본 국회의원 15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군사대국화와 재침 준비를 다그치려는 군국주의적 망동으로 과거 일제의 범죄와 똑같이 엄증시해야 할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몽골 대통령 내주 방북…김정은과 회담(10/22, 교도통신)**
 -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다음 주에 북한을 공식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회담한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함.
 - 몽골 정부 관계자는 이 통신에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달 28일 예정된 회담에서 양국 간 이슈와 지역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북한에 머무는 동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美 선교단, 내년 북한서 ‘통일축구대회’ 추진(10/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한 국제선교단이 내년 북한에서 재미동포 축구단이 참가하는 ‘통일 축구대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미국 텍사스 주의 협동침례교단(CBF) 산하 국제선교단은 내년 6월께 미국 거주 한인 축구단이 방북해 강원도 원산시 축구단 또는 강원인민병원 축구단과 친선 통일 축구대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최고 수준 대북제재 유지”(10/23, 미국의소리(VOA))**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3일 전함.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FATF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북한을 또다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대상국가로 지정했다고 방송은 밝힘.

- **북한 주재 中대사, 세포등판 축산단지 건설현장 방문(10/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최근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강원도 세포등판에 건설 중인 대규모 축산단지를 둘러봤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함.
 -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 대사 등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세포등판 축산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했으며 중국 외교관들에게 2017년까지 가축 수만 마리를 길러 매년 수천t의 육류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 관광업계, 겨울철 북한관광 준비 분주(10/23, 중국신문사)**
 - 북한이 올해부터 외국인에게 겨울철 관광을 본격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관광업계가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3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단둥의 중국 여행사들은 최근 북한 측과 겨울철 관광코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北, 페루 대사에 김학철 임명(10/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페루 주재 북한 대사에 김학철을 임명했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김일성大, 국제프로그래밍 대회 잇달아 우승(10/24, 조선신보)**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매월 열리는 국제인터넷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잇달아 우승을 차지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김일성대 학생들로 구성된 팀은 지난 14일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업 '디렉티'가 주최한 '코드셰프'(Codechef) 국제인터넷프로그래밍 대회에서 1위에 올랐음.

● **북한 역도 김은국,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10/24, 조선중앙방송)**

- 북한 역도선수 김은국이 2013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전함.
- 중앙방송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이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회에서 우리나라 김은국 선수가 남자역도 62kg급 끌어올리기(인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쟁취했다”고 밝힘.

● **美 구호단체, 北 홍수피해 지역에 의약품 지원(10/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민간 구호단체 '머시코'가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 병원에 의약품을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머시코는 지난여름 홍수 피해가 컸던 평안남북도 병원에 최근 항생제 280만정과 탈수증 치료제 90만 정을 지원했다고 RFA에 밝혔으며, 이 단체는 과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정부 예산 없이 자체 모금으로 지원했다고 전함.

● **北 노동신문, “유엔,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해야”(10/24,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제68회 '유엔의 날'을 맞아 유엔에 신뢰 회복을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유엔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제관계에서 강권과 전횡이 판치고 인권보호 등의 구실 아래 내정간섭과 제도 전복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에 유엔이 악용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유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밝힘.

- **北 올 1~9월 스위스 시계 수입량 작년보다 절반 감소(10/25, 자유아시아 방송(RFA))**
 - 북한의 올해 1~9월 스위스 시계 수입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방송은 스위스 시계산업연합을 인용, 북한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한 스위스 시계는 기계식 손목시계 155개, 전자 손목시계 231개 등 모두 38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수입한 양(754개)의 51.2%에 불과했다고 전함.

- **北, 러시아 연해주에 스포츠 교류 제안(10/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에 선수단 합동 훈련과 친선 시합 등 스포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함.
 -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림청일 나훛카 주재 북한 총영사는 이달 23일 연해주 정부 청사를 방문, 장 쿠즈네초프 문화·스포츠국 국장을 만나 상호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함.

- **세계식량계획, 北 평성시에 영양과자 공장 문열어(10/25, 미국의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에 새로운 영양과자 공장을 열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WFP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16일 평성시에 매달 294t의 영양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새로 열었다고 밝혔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영양과자는 인근 12개 군의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 23만 여 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 **北 노동신문, 中 6·25참전일 맞아 “양국 친선” 강조(종합)(10/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중국인민지원군의 6·25전쟁 참전 63주년인 25일 특집 기사를 통해 피로 맺은 양국의 ‘동지적’ 친선관계를 계승, 발전시키자고 강조함.
 - 신문은 6면에 ‘전화의 불길 속에서 두터워진 동지적 우의와 친선’이라는 제목의 논설과 함께 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의 용맹성과 희생정신을 찬양하고 양국 군인의 ‘우정’을 과시하는 기사 3개를 나란히 실었음.

- 신문은 논설에서 “중국인민의 항미 원조는 숭고한 이념과 위업실현을 위한 혈전의 길에서 맺어진 조중친선이야말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고한 불변의 유대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중국인민지원군에 경의를 표함.
- **北, 금융제재 비난…“자금세탁방지기구와 협력 입장”(10/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유지기로 한 것을 “적대세력들의 불순한 시도”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금융행동그룹’ 총회에서 북한의 금융제도를 문제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침해로 강력히 배격한다”고 밝힘.
- **올해 1~8월 북미교역 570만弗…작년비 반토막(10/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1~8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 규모는 약 570만 달러(약 60억 원)로 집계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26일 보도함.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양국 교역액 1천180만 달러의 절반에 불과한 규모이며, 올해 1~8월 양국 교역액은 대부분 미국의 대북 수출액이었으며 미국의 수입액은 50만 달러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임.
- **北, 일본인 유족 성묘 방북 다시 허용(10/27, 미국의소리(VOA); NHK)**
 - 북한 당국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사망해 북한에 매장된 일본인 유족들의 방북을 다시 허락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일본 NHK 방송을 인용해 27일 전함.
 - NHK 방송은 일본 도쿄에 사는 부부와 가고시마현의 한 남성 등 일본인 3명이 지난 24일 북한에 매장된 유가족의 성묘를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사 논평】 日 방위상의 ‘北 미사일기지 타격 언급’ 관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음흉한 기도”라고 비난(10.21, 중통/군사대국화와 재침을 위한 음흉한 기도)
 - 美 日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10.3, 도쿄)시 北 미사일기지 타격능력 검토 언급
- 【중통 논평(10.22)】 日 국회의원 150여 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10.18)에 대해 “군사대국화와 재침준비를 다그치려는 군국주의 망동으로 과거 일제의 전범죄와 똑같이 엄중시해야 할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비난(10.22, 중통/전범자들을 찬미하는 병든 일본)
 - ‘美-日 안전보장협의위원회(10.3, 도쿄)’ 합의를 거론하며 ‘일본이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주장(10.22, 중통-민주조선)
- 北 외무성 대변인, 10.2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의(10.16-18, 프랑스 파리)에서 ‘북한을 최고수준의 금융제재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은 “적대세력들의 불순한 시도, 자주권과 생존권 침해”라고 반발 비난 중통 기자 대답(10.25,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 “외부 핵위협 가증되는 한 핵 억제력 강화”(10/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3일 미국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외부의 핵위협이 높아지면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가동되는 것은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반공화국 제재’뿐이라며 “외부의 핵위협이 가증되는 한 그에 대처할 핵 억제력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북한의 정책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북한의 ‘선택포기’가 아니라 “동시행동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해 전 조선반도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함.
- 北, 풍계리 핵실험장 새 터널입구 2개 뚫어(종합)(10/24, 연합뉴스)
 - 북한이 향후 또 다른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두 개의 터널 입구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인용해 보도함.

-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및 남쪽에서 두 개의 새로운 갭도 입구와 이곳에서 파낸 흙을 쌓아놓은 더미가 관찰됐다”고 설명함.

3 대남 동향

- **北 조평통, 최윤희 합참의장 비난…“도발시 불바다”(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최윤희 신임 합참의장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호전적 발언에 대해 비난했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최 의장이 북한을 겨냥한 ‘선제타격’ 등을 언급한 데 대해 “호전적 망발과 군사적 대결 망동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이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신성한 영공, 영해, 영토에 단 한 점의 도발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서울만이 아니라 온 남조선 땅이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한미 대북심리전 강화 계획’ 비난…“중대한 도발”(10/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2일 한·미 군 당국이 내년 한미 연합군사연습부터 대북심리전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해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파멸을 앞당길 새로운 심리모략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 정부가) 심리모략전의 통합·정례화까지 공표한 것은 대결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비열한 심리모략 방식을 동족대결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광증”이라고 주장함.

- 北,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또 비난…“반통일대결정책”(10/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본질에 있어 체제 대결과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반통일대결정책”이라고 24일 보도함.
 - 신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을 맞아 게재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평함’이란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힘.

- 北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는 폭거”(10/24,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남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합법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 보수패당의 강제해산 책동은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유례없는 파쇼적 폭거”라고 주장함.

- 조선신보 “南은 ‘윤석열 쇼크’로 난리”(10/25, 조선신보)
 -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수사 외압’을 주장한 사건이 조선신보의 ‘가십 기사 코너’에 25일 보도됨.
 - 신문은 25일 ‘메아리’라는 코너에서 “남조선이 ‘윤석열 쇼크’ 때문에 난리”라며 윤 전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년 대선 당시 트위터글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난한 사실을 최근 밝혔다”고 전함.

- ‘불법 입북’ 6명 우리측에 송환…北, 유해 1구도 인도(종합2보)(10/25, 연합뉴스)
 -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이 25일 오후 4시 50분께 관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송환됐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이들 6명은 모두 남자로, 김모(44)·송모(27)·윤모(67)·이모(65)·정모(43)·황모(56)씨 등이며 북한은 이들 6명과 함께 유해 1구도 함께 우리측에 인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유해는 이날 송환된 이씨의 부인으로, 북측은 ‘부부간 문제로 인해 남편이 살해했다’고 우리 측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힘.

- **北 통신 “불법입국 南 국민 인도” 신속 보도(10/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에 억류 중이던 우리 국민 6명이 판문점으로 돌아온 오후 5시 48분께 북한 적십자회는 “25일 공화국에 불법입국하였다가 단속된 남조선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하여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고 밝힘.
 - 통신은 해당 기관이 그동안 이들을 조사했다며 송환 배경에 대해 “북측은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고 설명함.

- **北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발표…국정원 해체 주장(10/26, 노동신문)**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인 26일 남한에서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유신독재’ 체제가 부활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노동신문을 통해 주장함.
 - 조국통일연구원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백서에서 “악의 무리들(국정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실현할 수 없다”며 “괴뢰정보원은 개혁이 아니라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사민당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는 파쇼적 폭거”(10/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은 26일 남한 여권을 중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정의와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 용납 못할 파쇼적 폭거”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함.
 - 사민당은 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오늘의 남조선은 정치적 자유도, 인간의 권리도 완전히 말살된 정치 무풍지대, 파쇼의 난무장(亂舞場)”이라고 밝힘.
 - 또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열한 정치모략’이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는 대결분자들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낼 뿐”이라고 말함.

- **北, 박정희 34주기 맞아 “유신독재 부활” 비난(종합)(10/26, 노동신문)**
 - 북한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34주기인 26일 남한에 ‘유신독재’ 체제가 부활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파멸을 예고해주는 유신독재 부활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신의 후예들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은 오늘 남조선에서는 정보원과 경찰, 군부 패거리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이 날뛰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진보세력 탄압에 총발동되고 있다”고 전함.

- **군·경, 표류하던 北어선 1척 송환…“귀순의사 없어”(종합)(10/27, 연합뉴스)**
 - 기관 고장으로 동해 상에 표류하던 북한 어선 1척을 해군과 해경이 합동으로 구조해 북한에 인계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우리 측이 국제상선공통망(선박 핫라인)으로 송환 의사를 통보한 지 14분 만에 신속하게 수락하겠다고 답신을 해왔음.
 - 군의 한 관계자는 27일 “어제 기관 고장으로 동해 상에 표류하던 북한 어선 1척을 거진 앞바다로 예인했다”면서 “해군과 해경이 나서 기관을 수리하려 했으나 수리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 9시 48분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힘.

기타 (대남)

- 【중통 논평(10.22)】 내년 韓美 연합군사훈련부터 ‘對北 심리전 연합훈련 강화’(국감자료) 관련 “비열한 심리모략 방식을 동족대결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광증”이며 “우리(北)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10.22, 중통/파멸을 앞당길 새로운 심리모략소동)
- 심리모략전의 통합, 정례화까지 공표한 것은 대결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임.
- 우리(北)와의 전면전을 공식 선포한 것과 같으며 조금만 움푹해도 즉시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48호(10.24)】 새누리당 및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검토 등 관련 ‘통합진보당 탄압책동은 진보세력의 근간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있다’며 ‘우리(北)와 연계시켜 강제해산시키려는 것은 응답 못할 도발이며 도전’이라고 비난(10.24, 중통·평방)

10.28-10.31

10 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중대장·정치지도원 사격경기 지도(10/29,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의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함.
 -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이번 대회가 건군사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군에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하여 이번 사격경기대회를 조직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중대장대회 참가자와 화력타격 훈련 참관(10/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 화력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화력타격 훈련에는 비행대와 지상포부대가 투입됐으며 훈련이 끝나고 훈련장 상공에서 축포가 터졌으며 “우레같은 폭음과 포성이 진감하는(우리는) 속에 목표물이 송두리째 날아나는 것을 보면서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들은 신심과 낙관에 넘쳐 환호를 올렸다”고 밝힘.

김정은동향

- 10/27,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제36차 군무자예술회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10.27, 중통)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김창섭, 변인선, 서흥찬, 김수길, 럽철성, 김영철, 조경철, 황병서와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한 모범적인 중대장·정치지도원들 함께 관람
- 10/29,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사격경기대회 지도(10.29, 중방·평방·중통)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리영길(軍 총참모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등 관람
- 10/31, 김정은 黨 제1비서,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軍 화력타격훈련’ 참관(10.31, 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김수길, 럽철성, 리병철, 김영철, 박정천, 림광일, 한광상, 김경옥과 무력기관 지휘성원을 함께 참관

나. 군사

- **北 중대장·정치지도원 결의대회…“김정은 결사옹위”(10/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석자들이 28일 결의대회를 열어 “중대를 최정예 전투 대오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등 군 간부들이 참석함.

- **北, 김일성 부자 초상화 품고 숨진 선원들 선전(10/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9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지키고 숨진 선원들의 이야기를 뒤늦게 소개함.
 - 신문은 ‘숭고한 정신, 값높은 최후’라는 글에서 육해운성의 무역선 ‘대각봉호’가 항해 도중 거센 파도와 강풍으로 침몰한 상황을 자세히 적었으며 선원들이 배가 기우는 위기에서 생사를 생각하지 않고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고 주장함.

기타 (대내 군사)

-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결의대회, 10.28 최룡해(총정치국장/연설)·리영길·장정남·김창섭 등 참가자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10.28,중통)
- 모든 중대를 김정은을 결사옹위 하는 최정예 전투 대오로 만들 것을 결의

다. 사회문화

- **北 축구 ‘명가’는 ‘4·25체육단’…전국대회 또 제패(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소속 체육단인 ‘4·25체육선수단’의 남녀축구팀이 올해 북한의 전국체전 축구 경기를 동반 우승해 ‘축구 명가’임을 또다시 과시했다고 3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여성 헤어스타일 다양…올가을 ‘새기 커트’ 유행(10/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가을에 들어서면서 평양 여성들 속에서 긴 층머리(새기 커트) 형태가 파급(전파)된다”라며 “30대 여성들이 많이 하던 이 머리 형태는 20대 후반기와 40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함.
 - 더하여 “(북한에서) 최근 새로운 미용기술의 적극적인 보급으로 새로운 머리형태가 나이와 기호 등의 계선(한계)을 벗어나고 있다”고 소개함.

- **방북 스웨덴 기자 “나선시에 중국어 배우기 열풍”(10/31, 미국의소리(VOA))**
 - 중국과 접경한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주민 사이에 중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최근 방북한 스웨덴 기자의 말을 인용해 31일 보도함.
 - 방송은 지난달 나선시에서 열린 국제자전거관광축전에 참가한 스웨덴 ‘TT통신’ 요한 니랜더 기자는 VOA에 현지에서 인터뷰한 북한 주민이 중국과 경제교류가 늘면서 10대 청소년들까지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대표, 유엔총회서 “실용위성 계속 쏘아 올릴 것”(10/28, 조선중앙통신)**
 -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 대표가 23일 유엔총회 제68차 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임을 다시금 천명했다”고 전함.

- **북한, 외국기업에 50년간 토지 이용·개발권 부여(10/28, 아사히(朝日)신문)**
 -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 장기 이용권을 제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이 경제특구 14곳을 신설해 외국기업에 50년에 걸친 토지 이용·개발권을 제의한 사실이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작성한 투자 제안서에서 확인됐다고 전함.

● **몽골 대통령 방북…김영남과 정상회담(종합2보)(10/28, 조선중앙통신)**

-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28일 평양을 방문, 북한의 형식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과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친선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과 몽골은 김 상임위원장과 엘벡도르지 대통령 등이 자리한 가운데 공업·농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과 2013-2015년 정보 기술 분야 교류 계획서에도 조인함.

● **방북 몽골 대통령 “동북아 안정 위해 北과 협력할 것”(10/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특히 몽골과 북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전함.
-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8일 저녁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연 연회 연설에서 “몽골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해당한 모든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北 통신, 日 NSC 설치 추진 비난…“침략적 전쟁기구”(10/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국가기구 체계를 전쟁국가의 체모에 맞게 완비하려는 위험천만한 책동”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일본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은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이 일본의 완전한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美 단체, 올겨울 방북해 우물파기 사업 지원(10/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 우물파기 사업을 지원해온 미국 민간단체 ‘월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대표가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방북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함.
 - 린튼 대표는 당초 올해 여름 방북하려고 했지만 북한에 보내려던 영국산 사륜구동 차량의 중국 통관 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번에 방북하면 북한 지하수개발연구소 관계자들과 지원 사업을 협의하고 우물관련 기계의 정비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 **방북 사흘째 몽골 대통령, 박봉주 내각총리 면담(종합)(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30일 평양 만수대의 사당에서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를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어 통신은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을 찾아온 최태복 최고 인민회의 의장과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담화를 나눴다고 전함.

- **몽골 대통령, 방북 일정 마치고 귀국(종합2보)(10/3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외국 정상으로 처음 평양을 찾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나흘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31일 귀국했다고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 리룡남 무역상, 오금철 군 부총참모장 등이 평양비행장에서 엘벡도르지 대통령을 전송했으며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방북 기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났는지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음.

- **평양서 北-中 여자축구 친선경기 열려(10/31, 조선중앙통신)**
 - 14세 미만의 선수들로 구성된 북한 초병체육단 여자축구팀과 중국 여자축구팀의 친선경기가 31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양팀 선수들의 나이는 어리지만 경기는 매우 치열했다며 북한팀이 중국팀을 2-1로 이겼다고 밝힘.

기타 (대외 일반)

- 北대표, 10.23 유엔총회 제68차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北은 평화적 우주개발에 힘을 넣고 있다'며 '우주개발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언급(10.27,평방)
-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걸고 조작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단호히 전면 배격하며 앞으로도 국제법적 절차를 밟아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실용위성들을 쏘아 올릴 것임.
- 김영남, 10.28 몽골 대통령(차히야 엘벡도르지)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 진행(10.28,중통·중방)
- 박의춘(외무상), 리룡남(무역상), 리종무(체육상), 김정숙(대외문화연락위 위원장), 박길연(외무성 부상), 곽일룡(육해운성 부상), 홍규(駐몽골 北대사) 등 참가
-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 교환
- 몽골 대통령 訪北 관련 "조선선민인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고 오는 몽골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몽골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10.28,중통·노동신문/친선의 정을 안고 오는 사절)
- 訪北 몽골 대통령, 10.29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박의춘(외무상)·홍규(몽골 주재 北 대사) 등 동행(10.29,중통·중방·평방)
- 몽골 대통령, 10.29 판문점(김일성 친필비·정전회담 회의장·판문각)·공민왕릉 참관 및 개성시 인민체육대회 참석(10.29,중통·중방)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대답(10.31)】 美 국무장관(케리)의 발언(北 불량배 국가) 관련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및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 철폐 전까지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주장(10.31,중통)
- 미국이 對北 적대시정책을 철폐할 용의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우리(北)가 회담재개를 위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꿈에도 없을 것임.

나. 6자회담(북핵)

- 北 노동신문 "핵 억제력은 흥정물 아니다" 거듭 강조(10/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통일·외교 장관의 최근 북핵 관련 발언을 비난하며 "우리의 핵 억제력은 그 무엇과 바꾸기 위한 흥정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함.
 - 신문은 '우리의 핵억제력은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지금까지 운병세나 류길재가 우리 노선을 시비·중상하고 북남관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데서 누구보다도 악질적으로 놀아댔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며 남측 인사들이 "북핵 폐기'니 뭐니 하며 우리의 정책 노선에 대해 휘방질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함.

- 北 외무성 “6자회담 재개에 먼저 나서는 일 없을 것”(10/31,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자주독립국가인 공화국을 ‘불량국가’라고 모독한 것은 미국의 적대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전함.

3 대남 동향

- 北통신 “南의 日 집단적자위권 용인은 북침전쟁 기도”(10/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조건부로 용인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이는 “외세를 업고 북침전쟁에 나서려는 기도”라고 주장함.
 - 통신은 ‘역사의 반란에 가담하려는 반역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은 20세기 때보다 더 위험한 전쟁국가로, “일본 해외침략의 첫 대상은 바로 우리 나라”라며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는 “일본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민족반역 행위”라며 “마치 ‘목숨을 바쳐 천황을 받들고 충성하겠다’라는 혈서를 쓰고 ‘최후의 일본 제국 군인’으로 불렸던 유신 독재자가 부활한 것 같다”라고 비난함.
- 北 조평통 “南이 유신독재 미화” 비난(10/31,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1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유신을 미화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보도에서 “박정희는 무지막지한 공포정치, 정보정치로 남조선을 파쇼의 암흑천지로 만들었다”며 “남조선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유신 독재시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커다란 불행이고 수치”라고 주장함.

기타 (대남)

- 「조국전선」 중앙委, '南에서 유신 독재 부활이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유신 독재 부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고발장 발표(10.28,중통/유신 독재의 부활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 유신 독재 부활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으며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南정권은 집권 후 유신 독재 부활에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파쇼독재 부활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과거시대를 되살리려는 낡은 세력의 발악적인 몸부림'이라고 주장(10.28,중통·노동신문/파쇼독재 부활 책동은 역사의 흐름에 도전하는 반동공세)
- 「중통 논평」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조건부로 용인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이는 '박○○ 패당이 장차 일본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민족반역 행위'라고 신랄히 비난(10.29,중통/역사의 반란에 가담하려는 반역아)
 - 외교부의 재외공관에 '독도 표기와 관련해 주재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 지침은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재침야망,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는 친일매국 행위"라고 비난(10.29,중통/영토강탈 야망을 키질하는 추악한 친일매국 행위)
- 【중통사 논평】 우리 정부의 '北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 발언 관련 '남북대화의 파기자, 정세악화의 장본인으로서 저들에게 쏠린 국제사회의 비난과 여론을 오도해 보려는 선부른 수작질'이라고 비난(10.30,중통/식민지 하수인의 주제넘은 푸념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10.31)】 우리 정부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미사일 군비 경쟁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핵 불소나기를 쏟아지게 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비난(10.31,중통)
 - 우리 정부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조건부 용인에 대해 "쓸개 빠진 민족 반역행위"라고 비난하며 "또다시 비통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10.31,평방/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쓸개 빠진 망동)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10월

북한동향 일지

〈9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9/1,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함흥모방직공장·함흥편직공장 현지요해
9/2,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인민내무군협주단의 음악무용 종합공연 ‘선군의 나의 조국’ 관람
9/3,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시찰 및 “섬 방어대들을 꾸리는데 기여한 단위들”에 ‘감사’ 전달
9/3,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애국돌공장(황해남도 해주시) 현지지도
9/3,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월내도방어대 시찰
9/3,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룡연바닷가 양어사업소 현지지도
9/5,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과 근로자들’(육해운성 산하 청진대리사무소 부원 윤병철·농업성 산하 지구자재공급소 노동자 김중철 등)에게 감사 전달
9/5, 중통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중국 편집물제작 대표단 면담 및 중화문화발전축진회·중국 국제우호연락회 전달 ‘김정은 선물(北 정권 수립 65돌 관련)’ 접수
9/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美 NBA 前 선수 ‘데니스 로드먼’과 담화 및 농구경기(4.25팀 : 압록강팀) 관람후 만찬 마련
9/9,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 시찰 및 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
9/1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와 리설주,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 관람
9/13,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평양산원 의사 김세준’ 등에게 감사 전달
9/15,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개건된 평양체육관 시찰
9/16, 중통·중방	김정은·리설주 부부, 9.15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4일차 63kg급·69kg급 경기 관람
9/18, 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시찰
9/18, 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건설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9/1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종업원들 등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교직원·학생들이 올린 편지에 ‘친필’ 전달
9/19, 중통·중방	김영남·장정남·김원홍 등 黨과 정권기관, 추석계기 ‘김보현·리보익·김형직·강반석 묘’에 화환 진정
9/22, 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승기념관 건설에 기여한 만수대창작사·외국문출판사 등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9/23,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문수물놀이장 건설장과 완공단계에 이른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장 현지지도
9/24,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 구강병원 건설장 현지지도 및 '구강병원 → 류경 구강병원'으로 개명
9/24,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1일경기장을 돌아보고 개건 보수과업 제시
9/24, 중통·중방	박봉주(내각 총리), 제9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장 참관
9/2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장 현지지도

<10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10/2, 중통·중방	김일성종합대학 김정일 동상 제막식, 10.1 김영남(제막사)·박봉주·최룡해·장정남·김기남·최태복 등 참가下 진행
10/3, 중통·중방	개건된 '평양체육관' 개관식, 박봉주(내각총리, 개관사)등 참가下 진행
10/4,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아리랑' 공연 참가자들에게 '감사' 전달
10/6,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 앞둔 아동병원(연건축면적 3만2,800㎡, 6층) 건설 현장 시찰 및 "옥류아동병원"으로 命名
10/8,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연건축면적 6,100㎡) 현지지도
10/9,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단계 건설이 끝난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
10/1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0시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父子 참배
10/10, 중통·중방	김영남, 박봉주를 비롯한 黨과 국가 책임일꾼들,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父子 참배
10/1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0.10 리설주와 함께 전국 道대항 체육경기(평양체육관)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 관람
10/12,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조한 전투함정들 시찰 및 기동훈련 지도
10/13, 중방·중통	평양 문수지구 '옥류아동병원'(연건축면적 32,800㎡, 6층) 및 '류경구강병원' 개원식, 박봉주·김기남·최태복(개원사)·양형섭·문경덕 등 참가下 진행
10/14,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 및 미림승마구락부 시찰
10/14, 중통·중방	박봉주 내각 총리, '가을 걷이와 낱알털기 혁신' 평안남도 숙천군(열두삼천농장)·운천군(안석협동농장) 현지 요해
10/16, 중통·중방	김정은·리설주, 10.15 동평양대극장에서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 공연 관람
10/16, 중통·중방	김정은, 10.15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노동당 만세' 관람
10/19, 중통·중방·평방	김영남·박봉주·최룡해 등 黨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입주
10/2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 시찰
10/21, 중통	北, 박봉주·전승훈(보고) 등 참가下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10/23, 중방	김일성 강원도 현지지도 60돌 기념보고회, 10.22 박정남(강원도黨委 책임비서/기념보고)·원도희(道인민투 위원장)·박두필(道농촌경제리투 위원장) 등 참가下 원산에서 진행
10/25, 중통·중방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10.22~23 김정은(개회사 및 폐회 선언) 지도 下 평양에서 진행
10/25, 중통·중방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남도 웅진군의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장승협동농장 등) 현지 요해 및 황해남도 버섯공장 건설장 방문

10/25, 중방·중통	미림승마구락부(평양시 교외 미림지구) 준공식, 박봉주·최룡해(준공사)·김기남·문경덕 등 참가下 현지 진행
10/27,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제36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
10/29, 중방·평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사격경기대회 지도
10/29, 중통·중방	‘제24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1,200여건 출품)’ 개막식, 10.29 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최상건(국가과학기술총 위원장) 등 참가下 3대혁명 전시관에서 진행
10/30, 중통·평방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백화원 영빈관에서 몽골 대통령과 담화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